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전문대학 소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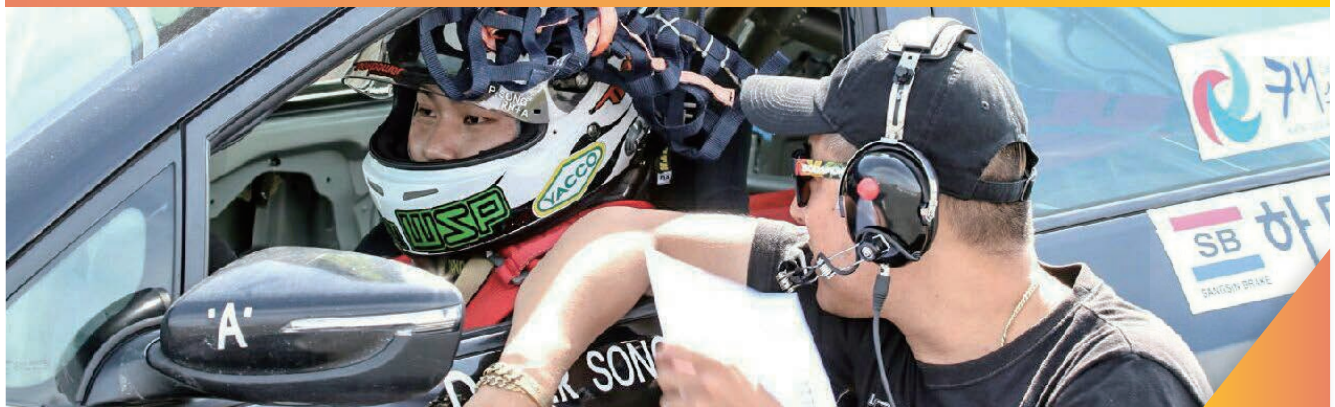
2017 / November

MESSAGE 한국전문대학 우수전문기술인 교육혁신 총장협의회

EVENT 더 나은 미래, 더 큰 꿈을 밝힌 축제의 장, 2017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

JOB&STAR 인터뷰_팀 맥스파워 및 '포스모터스' 대표, 휠스핀(Team WSP) 감독 박상현 <아주자동차대학 모터스포츠 전공 2012년 졸업>

CAMPUS 꿈이 있는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2017 대한민국 전문대학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자 원준혁 학생>



Monthly Magazine www.kcc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전문대학포털-프로칼리지
PROCOLLEGE

일찌감치 찾아온
흰눈과 함께 계절은
겨울 속으로 성큼
걸어들어갑니다.

바람은 차가워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지금 대학과
수험생들은 입시
열기로 뜨겁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은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행복한
매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대학 소식 2017년 11월호(통권 제211호)

발행인 이기우 주간 김상돈 발행일 2017년 11월 25일 발행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소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 센트럴타워 7층 홈페이지 www.kcce.or.kr 제호 · 슬로건 캘리그래피 김상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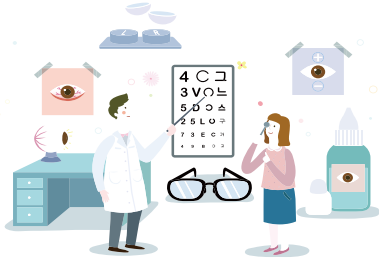
기획 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031.955.1989 인쇄 현대디자인 02.2263.0797

전문대학 소식 편집위원회

김상돈(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보전략실장), 김종열(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서상준(영남이공대학 홍보팀장),

이광영(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정원(인천진로진학협의회 회장, 동인천고교 교사), 하우석(한국영상대학교 이벤트연출과 교수)

A
C
C
E
S



Agenda

04 Message

한국전문대학 우수전문기술인 교육혁신 총장협의회
지역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이 함께 사는 법을 찾아가다

08 Issue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년 대비 8.8% 증가
좀 더 깊이 배우는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의 경쟁력 up!

10 Event

2017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
더 나은 미래, 더 큰 꿈을 밝힌 축제의 장

College

18 Theme①

기획_인성교육, 전문대학에 묻다
휴먼케어의 시작은 올바른 인성교육에서 <수성대학교>

22 Theme②

기획_전문대학 기초학습지원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는 학습전략 <강동대학교>

26 Job&Star

인터뷰_ '팀 맥스파워' 및 '포스모터스' 대표, 월스핀(Team WSP) 감독
박상현 <아주자동차대학 모터스포츠 전공 2012년 졸업>

30 Global

글로벌 인재 양성
입학부터 졸업까지,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시간 <삼육보건대학교>

Education

32 Campus①

꿈이 있는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2017 대한민국 전문대학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자 원준혁 학생

34 Campus②

태양광 주목하던 충남도립대학교 S동아리 학생 24명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다!

36 Department

우리 대학 브랜드
현장에 강한 소방 전문 인력이 자란다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40 Career

안경광학 분야 교육 내용과 취업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안경? 안경광학의 직업세계

42 Culture

면접시험에 도움을 주는 책
긴장감 풀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면접은?

Specialist

45 Campus News

우리 대학 소식

67 Q&A

직업교육기관별 차이점
전문대학·전문학교·폴리텍대학, 서로 달라요!



글. 최원근
사진. 페이스스튜디오

‘지역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전문대학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열린 간담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시간여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이어졌다.

특히 이날의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 총장이 함께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나아가, ‘한국전문대학 우수전문기술인 교육혁신 총장협의회’가 정식 출범하며 전문대학의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환영사 하는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전문대학 우수전문기술인 교육혁신 총장협의회

지역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이 함께 사는 법을 찾아가다



우수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리더들이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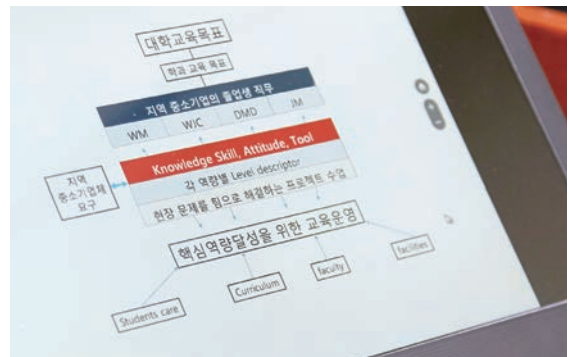
11월 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문대학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시작 전부터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여줬다. 더욱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네는 전재수 의원의 모습에서 오늘의 행사가 얼마나 뜻 깊은 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는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우 회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을 비롯해 전국의 전문대학 총장 등 5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전재수 의원의 환영사로 서막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 중 전문대학이 잘 되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는 말로 환영사를 시작한 전재수 의원은 “예산이나 지원 등 열심히 전문대학 정책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만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혜로운 의견들을 잘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남다른 포부를 들려주었다.



이어 이기우 회장은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전재수 의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현장에서 잘 받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정식 출범한 ‘한국전문대학 우수전문기술인 교육혁신 총장협의회(이하 우수전인교협)’ 김영도 회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자,는 말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라며 우수전인교협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전했다.





국회, 정부, 총장이 함께하는 간담회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조선형 교수(동서울대학교)의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고 우수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조 교수는 우수전문교협이 출범하기까지의 전문대학의 교육현실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오랜 연구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다. 더욱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못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다. 교육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조선형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 정주리 교수(동서울대학교)의 '사회력과 기초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 김대경 교수의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 내 전공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운영방안' 손호재 교수(거제대학교)의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분석을 통한 전문대 지원 방안' 박찬호 교수(부천대학교)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지원 사업 분석을 통한 전문대 지원 방안' 조훈 교수(서정대학교)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정지원 사업 분석을 통한 전문대 지

원 방안' 장철인 교수(서영대학교)의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사업 분석을 통한 전문대 지원 방안' 등 전문대학의 다각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에 임한 교수들은 '전문대학교육혁신연구회'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에 몰두할 것을 강조했다.

우수전문교협의 출범과 심도 깊은 간담회

주제발표가 끝난 후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은 “지난 9월 6일 1차 간담회를 통해 회장을 선임하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10월 12일 전국 9개 대학의 총장을 초청해 의견을 조율했으며, 오늘 2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의회의 발족과 더불어 우수전문교협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라며 참석한 총장들의 진솔한 의견을 부탁했다.



지역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

국회의원 전재수 주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혁신연구회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일시 : 2017. 11. 09(목) 오후 3시 30분



“

정책간담회의 또 다른 의미는 전문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리더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총장들은 ‘발대식’이란 형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발대식을 위한 준비된 시간마저 토론에 쏟아 부으며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첫 주제는 협의회 의 명칭에서 시작됐다. 이후 협의회 의 참여 방법과 자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연회비 등의 문제와 향후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으로, 이날 행사의 또 다른 의미를 전문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리더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총장들은 ‘발대식’이란 형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발대식을 위한 준비된 시간마저 토론에 쏟아 부으며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2차 정책간담회와 우수전인교협 발대식은 총장들의 열정 속에 끝이 났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남다른 교육열을 지닌 전문대학의 리더들, 그들이 만들어 나갈 우수전인교협의 발걸음, 그리고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그 희망찬 첫걸음이 아낌없는 응원과 기대를 가져본다.♡



글. 윤인영



좀 더 깊이 배우는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의 경쟁력 up!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년 대비 8.8% 증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확대 실시되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만 여 명의 학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8학년도에는 전년대비 8.8%가 증가하여 전문대학 106개교, 749개 모집단위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한다.

✓ 43개교 73개 모집단위 신규 인가·지정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8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에 따라 새로 인가 받은 43개교 73개 모집단위(모집정원 1,344명)에서 2018학년도부터 해당 전공에 대한 전공심화과정 학생 모집한다. 2018학년도 전체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은 16,493명이며, 이는 2017학년도 15,149명 대비 8.8%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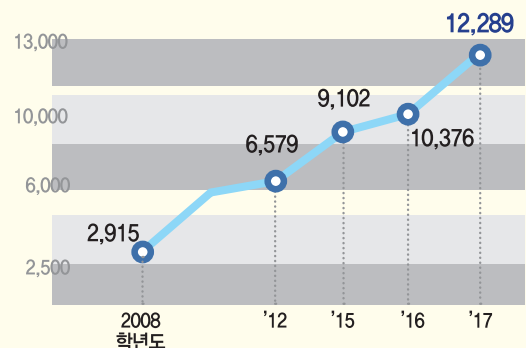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의 신규 인가평가 및 질 관리 위탁기관으로서, 이번 신규인가·지정 평가는 대학별 신규인가 신청서 중 산업체 및 학생 등 지역사회 수요조사 실시 여부 평가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과정 개설을 제한하고, 이미 운영 중인 전공심화과정에 대해서는 교육 품질 제고 차원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유도하여 일반대학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있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갈수록 인기

전공심화과정은 경기,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산업체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간호·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추이 단위 : 명



진, 서비스, 교육, IT 등 전문학사과정보다 향상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중 재직자 비율이 41%이며, 야간과정 개설 비율이 83%로 일·학습병행을 통한 재직자 계속교육의 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대학과는 차별화 된다. (2017.4.1.기준)

✓ 현장 중심의 융복합 인재 양성의 성과

전공심화과정은 2008학년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공심화과정의 사회적 통용성을 높여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의 학사학위가 차별 없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협조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공심화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정 기반 맞춤형 학기제, 융·복합 전공 코스 등 유형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범대학 선정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황보 은 사무총장은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정 기반 맞춤형 학기제, 선행경험학습 인정 방안, 융·복합 전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방법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주요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워크숍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성공적인 발전 전략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체 전공심화과정 운영대학의 학과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전공심화과정 시행 10여 년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한 전공심화과정 연차평가, 교육여건 점검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전공심화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여, 각 대학의 학과장들로 하여금 전공심화과정을 ‘현장·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학위과정으로 재설계 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워크숍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발전방안 연구 결과 발표, ▲전공심화과정 우수사례 발표1(춘해보건대학교 언어재활과), ▲전공심화과정 우수사례 발표2(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 지침 안내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실무능력강화, 학습자 자기개발을 통한 창업 및 취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어 타 운영사례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공심화과정 관련 개정된 법령 및 지침을 안내함으로써 전공심화과정 운영대학이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우수사례 01

춘해보건대학교 언어재활과

2017년도 운영성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특수교육’과 ‘언어치료’라는 두 가지 복수 전공이 3년에 가능한 전국 유일의 학과다. 국가정책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분석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교과목 실험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역 사회의 언어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서비스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기업으로 언어치료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언어재활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언어치료 임상 및 관찰 실습을 할 수 있다.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던 졸업생이 부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으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들 가운데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언어발달센터’를 창업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우수사례 02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치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임상현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심화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도 운영성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치위생학과는 전문학사와 연계한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술제 출전 지원 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감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치과위생사 외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학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개인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글. 이영경
사진. 페이스스튜디오



더 나은 미래, 더 큰 꿈을 밝힌 축제의 장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진로·직업체험 박람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2017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권 행사로 열려 미래사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됐다. 해마다 다양성을 더해 더 큰 규모로 풍성하게 진화한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은 더 큰 꿈을 키워나갔다.

전문대학과 열어가는 꿈을 향한 디딤돌

한층 깊어진 가을날의 정취가 물씬한 일산 킨텍스에는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장을 찾은 수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수도권 및 지방 청소년들이 대거 몰린 박람회는 '꿈을 찾고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다양성 넘치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기획체험관을 비롯해 자율체험관 곳곳을 누비는 학생들로 박람회장의 열기는 온종일 후끈거렸다.

오전 11시에는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여러 내빈과 전국 전문대학 총장 22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뜨겁게 염원했다.

이기우 회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은 개회사에서 “전문대학의 모든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전국권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운을 뗀 뒤,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람회 개최를 선언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개회사 하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축사 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대학이 고등학생들에게 큰 희망이고 미래의 길이다. 학생들이 자격이나 기술, 면허나 기능을 가질 때 그것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고 일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가말로 학생들이 꿈꾸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나노 기술, 가상 현실, 로봇산업, 드론까지 산업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부터 전문대학 교육까지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주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만들 수 있다”며 첫 공동주최의 기쁨을 전했다.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는 “참으로 기쁜 날”이라며 축사의 포문을 열었다. “새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성과 따뜻한 인성, 뜨거운 열정을 겸비한 고등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 하는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축사하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특히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직업교육에 대학 국가적 책임을 확보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산업계를 선도하는 역군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전문직업인이 주인이다. 전문대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매년 유턴 입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끊임 없이 응원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러한 축사에서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위해 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마다 정치, 교육만 잘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은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지만, 각 개인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전문직업인이 주인공이다. 전문대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는데, 매년 유턴 입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이번 박람회와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은 전문대학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전문대학이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똑 같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걸어가는 길에 큰 보탬이 되어 우리 대학생과 아이들이 현실에 좌절할 게 아니라 용기 있고 담대한 도전이 늘 이루어지는 사회를 하루빨리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빈들의 진심 어린 축사에 이어 ‘제2회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의 대상 수상팀인 명지대학교 실용음악과 ‘배울림팀’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흥을 한층 더했다. 내빈들은 전시장 투어를 통해 여러 대학 부스를 찾아다니며 함께 시연하고, 행사를 준비한 대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한껏 격려했다.





미래 직업 세계를 한눈에, 다양성과 재미에 빠진다



2017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는 전국 54개 전문대학과 7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가 참가하여 풍성한 직업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미래의 비전을 찾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직업을 하나로 통찰할 뜻깊은 기회로 자리했다.

학생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나노드림관'과 '미래사회체험관'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 기반인 나노기술, 가상현실(VR)과 로봇산업(IOT) 등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선보였다. '기획체험관'에서는 심도 있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뷰티, 게임 등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율체험관'에서는 대학별 학과와 직업을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간호·보건 분야, 공학 분야, 자연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예체능 분야'로 구분해 치위생사, 드론·VR, 인공지능, 영상콘텐츠제작사, 애견 훈련사, 카지노딜러 등 모두 80여 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부스 외에도 전문대학이 전공별로 연계해 운영한 학교 기업관도 눈길을 끌었다.

박서연 학생(경기 남양주시 심석중 1년)은 "막연하게 제과제빵사를 꿈꿨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전했다. 함께 온 이지우 학생은 "진로 결정을 따로 못했기에 이번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 빠짐없이 골고루 체험하고 갈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카테일 주조 등 호텔리어 체험 부스를 준비한 장안대학교 호텔경영과 조성정 학생(2년)은 진로 체험이라 고등학생들이 더 방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중등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면서 "특히 호텔리어와 승무원의 차이점을 문의하면서 진로상담을 요청하는 등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했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 분야에도 참가자들의 관심이 고조됐고, 학생들은 코딩과 드론 VR 체험에도 열광했다. 반도체 관련 진로를 꿈꾸는 김준후 학생(충북 음성군 무극중 3년)은 "미래사회체험관에서 로봇 프로그래밍과 VR 체험을 해보니 진로에 확신이 생겼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김도영 학생(경기 수원시 곡정고 2년)은 "전문대학 애니메이션과에 진학할 생각이었는데, 제품아이디어 스케치나 이모티콘 디자이너 등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하게 되어 진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나노드림관'과 '미래사회체험관'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 기반인 나노기술, 가상현실(VR)과 로봇산업(OT) 등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선보였다. '기획체험관'에서는 심도 있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뷰티, 게임 등 현장밀착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율체험관'에서는 대학별 학과와 직업을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간호·보건 분야, 공학 분야, 자연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예체능 분야'로 구분해 치위생사, 드론·VR, 인공지능, 영상콘텐츠제작사, 애견훈련사, 카지노딜러 등 모두 80여 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부스 외에도 전문대학이 전공별로 연계해 운영하는 학교 기업관도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아주자동차대학이 선보인 노란색 수제 스포츠카에 큰 호응을 보이며 탑승의 즐거움을 누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촬영장비 체험을 선보여 전문성을 더했다. 또, 승무원 체험과 화장품 제조 체험, 특수분장 체험은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기획체험관에서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서비스를 체험한 임가운 학생(경기 고양시 세원고 1년)은 “가고 싶던 분야의 체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진로 굳히기에 도움이 됐다”며 기뻐했다. 박람회에도 참가한 학생들은 “굉장히 다채로우면서 즐거웠고, 직업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하며 전문대학을 재발견한 행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꿈과 끼를 찾는 소통의 자리

바지런히 진로 탐색에 열을 올린 학생들은 진로 특강과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진로 상담' 존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적성 분석과 진로 설계를 진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나노기술원 이종근 연구원의 '제4차 산업과 미래기술', 우주인 고산 박사의 'Shoot for the moon' 등의 진로 특강과 북카페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산업과 자신의 진로를 조망해 볼 수 있었다. 드론경진대회, 박람회 체험 사진·동영상 공모전, 체험 인증 스탬프 이벤트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한편, 대한민국 실용음악페스티벌 수상팀의 열정 넘치는 공연과 오케스트라 공연이 마련돼 박람회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가을날의 감성을 짙게 자극했다.

이색적인 직업 체험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크게 호평받은 박람회는 사흘간 전국 6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어주었고,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대학의 노력과 진심 속에 아름답게 꽃핀 행사는 내년을 기약하며 성공적으로 갈무리됐다. ☺



글. 김태일
사진. 수성대학교

휴먼케어의 시작은 올바른 인성교육에서



수성대학교 인성교육

수성대학교의 새내기라면
입학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있다. 바로 '인성교육'
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학은 물론 대학생활과 졸업에
제대로 방점을 찍을 수 없다.

수성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하는 혼한 풍경을 만날
수 없다. 신입생들은 이 자리에서
'김선순 총장과 인사 제대로
하기', '휴먼 케어 전문 직업인의
비전 알기', '나의 비전 수립하기'
등 으레 짐작하는 것과 확연히
다른 콘텐츠를 경험한다.
새내기 OT의 핵심 키워드가
인성교육이기 때문이다.

수성대학교의 이런 분위기
덕분에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안녕하십니까'라고 외치는
새내기들의 인사 소리가 캠퍼스
곳곳에서 넘쳐나는 것도 여느
대학과 다른 풍경이다.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수성인을 위해

수성대학교가 이처럼 인성교육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은 순전히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김신순 총장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나를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기업과 사회의 눈높이와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 기업인들은 학생들의 업무능력이나 전공지식 등 실력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인성에 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신입생 오티에서부터 학교생활, 강의 등 모든 부문에서 인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성대학교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대대적인 인성교육에 나섰다. 우선 대학의 비전인 ‘휴먼케어 특성화’에 따른 인재상인 ‘휴먼케어 전문가’의 자격요건에 인성을 필수화하고 ‘휴먼케어 품성인증제(HC품성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휴먼케어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규정에 명문화했다.

‘휴먼케어 품성인증제’는 수성대학교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리더십, 봉사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 및 학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이수실적을 심사,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했다. 특히 인성교육과 취·창업리더십 캠프, 대내·외 봉사활동은 휴먼케어 품성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필수화했다.

이에 따라 인성 함양은 ▲공통/전공 인성교육(필수) ▲인성함양 캠프 ▲인·적성 검사 ▲HC지정도서 독서 ▲자격증 취득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리더십 함양은 ▲취·창업리더십 캠프(필수) ▲글로벌리더십 교육 ▲모범사례 선정 ▲HC지정도서 독서 ▲자격증 취득 등을, 봉사실천 부문은 ▲대내·외 봉사활동(필수) ▲봉사학점 ▲모범사례 선정 ▲HC지정도서 독서 ▲자격증 취득 등을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인성교육

수성대학교 ‘휴먼케어 품성인증제’의 도입은 대학 학사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교수들이 앞장섰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먼저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대학 실정에 맞는 교재도 만들었다. 교수들은 ‘수성대학교 인성연구회’를 결성하고 매 학기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 및 리더십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개설, 앞장서서 인성교육 전문가로 변신하는 한편 연구회 소속 교수 10명으로 인성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 ‘인성과 리더십 · 자기계발 · 직업윤리와 직장예절’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취업(현장실습)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인간관계와 문제 해결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재를 만들었다.

특히 교수들은 인성교재 출간에 따른 인세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해마다 기탁, ‘사제간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인성연구회 회장인 유아교육과 김은영 교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교수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인성연구회를 결성,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업윤리와 직장예절 등을 연구하고 토론했던 성과물로 교재를 만들어 출간했다”고 말했다.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이내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입생 오티가 달라졌다. 대학 밖으로 나가 '놀자판'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내에서 '인성 ·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으로 변화했다.

학과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신입생 환영회나 MT에도 학생들의 인성과 문화적 감성을 입히는 등 달라지고 있다. 간호학과와 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페라 가수를 초청, '미니 오페라공연'을 결들인 신입생 환영회를 실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피부건강관리과도 학생들이 스스로 '작은 음악회'를 기획,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를 연주하며 신입생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지는 등 학과마다 다양한 신입생 환영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인성교육으로 키워가는 사랑의 마음

수성대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는 특히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등 재능기부로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수성대학교는 'HC품성 인증제'를 위해 연간 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학점(2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품성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대학교 학생들은 학과별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호텔조리과 봉사동아리 '조봉동'은 해마다 5월이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잔치상'을 성대(?)하게 차린다. 지역 사



회복지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이 잔치는 호텔조리과 교수, 학생들이 나서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차려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한다.

물론 이 잔치에는 피부건강관리과 학생들이 나서 어르신들을 위한 손마사지, 귀마사지를 실시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혈당, 혈압 등 어르신 건강 체크를 해 드리고, 안경광학과 학생들 역시 어르신들을 위한 안경 세척 등의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경영과 등은 대학 축제나 체육대회 등 각종 교내행사에는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나 주점 운영을 하고 있고, 총학생회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독거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김장 봉사에 해마다 나서고 있다.

수성대학교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통한 재능기부는 이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재능기부에도 기업 등 산업체와 함께 하는 등 '산학 맞춤형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약빵(옥수수빵)'으로 유명한 제과점인 삼송빵집과 산학협약을 가진 뒤, 학생들과 삼송빵집 셰프들이 함께 마약빵 등 10여 종의 빵을 만들어 선물



66

수성대학교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통한
재능기부는 이젠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재능기부에도 기업 등
산업체와 함께 하는 등
'신학 맞춤형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99

했다. 올해도 해외봉사단 학생들이 CJ헬로비전나눔봉사단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에 나서, '불고기와 주
먹밥 도시락' 100여개를 만들어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선물하
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책과 함께 성장하고 꿈꾸는 수성인

수성대학교 인성교육에는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HC품성인증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서는 책을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책
읽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성과 관련된 1,000여 권의
책을 'HC지정도서'로 선정하고, 독서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실시하는 'HC지정도서 독서 마라톤대회'는 학생들
의 신청을 받아 8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풀코스(4권)에
도전하는 하프코스, 미니코스(2권)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는데 해
마다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성대학교 도서관은
이밖에도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책제목 글짓기 이벤
트 · 도서관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포인트(1포인트)
를 부과, 포인트 점수에 걸맞는 푸짐한 경품도 제공해 학생
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학생들에게 영
향력이 상당한 유명 저자들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휴먼케어
북 아카데미'도 시행했다. 북 아카데미에는 학생들은 물론 교
직원과 지역 주민들도 적극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북
아카데미에는 정치인에서 전업작가, 방송인으로 변신한 유시
민 전 장관을 초청하여 '글쓰기 방법 제대로 배우기'로 특강을
들은 것을 비롯, 김성근 야구 감독,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 시
골의사 박경철, 시인 신달자, 진보논객 진중권교수, 철학자 강
신주 씨 등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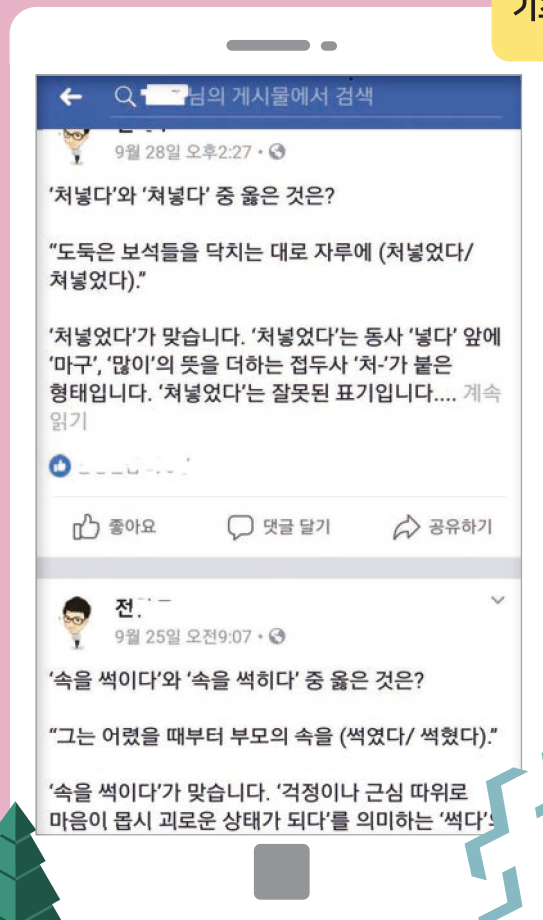
수성대학교 2017학년도 졸업생 가운데 'HC품성인증제'를
이수한 학생은 전체 졸업생(1,267명) 가운데 25%인 315명이
다. 이는 전년도 졸업생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지만 만
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HC품성인증제'
이수 학생들은 학과별 편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전체 졸업생 가운데 81%가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 치위생과(68%)와 방사선과(42%), 간호학과(39%)
등의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학과
는 매우 저조하다.

수성대학교 김종근 교학지원처장은 "우리 대학의 'HC품성
인증제'를 이수한 졸업생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만족도는 평
장히 높다"며 "기업과 사회는 인성을 제대로 갖춘 인재를 원하
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학은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많
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 윤인영
사진, 강동대학교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는 학습전략



강동대학교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GDLang IT
LMS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강동대학교는 재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실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실과 협동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동하는 사회수요맞춤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준별, 학년별 맞춤형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논어〉의 첫 단락인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강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수용적 사고’, ‘학생중심 사고’, ‘열정과 성실한 행동력’을 행동원칙으로 삼고 학생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성취할 때까지 관리하는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 향상 교육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한다. 전문대 학 기초학습능력이란 전문대학 과정에서 학습 수행, 즉 직무 역량 습득에 필요한(전공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초학습능력을 뜻하며 언어, 수리, 사고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입학생들의 학습능력 격차는 점점 커지고, 선행학습에서의 학습 결손 정도가 심하고 자기주도적인 자세가 부족해 전문대학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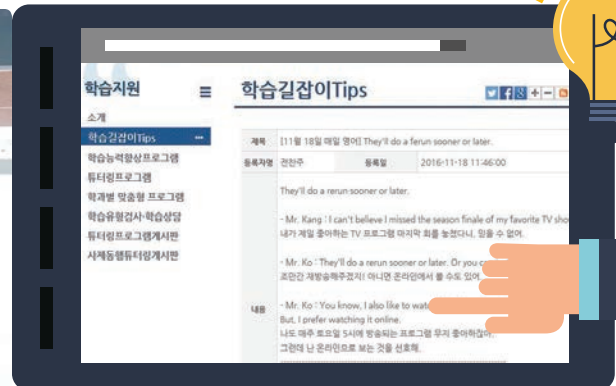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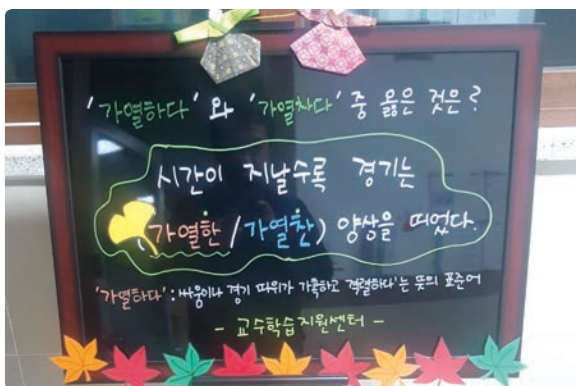
이런 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강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입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역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평가 결과 미성취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재평가, 여기서 다시 미성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차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결국 마지막까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기초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한다.

단계별로 보면, 입학 후 첫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1차 평가)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진단평가지를 사용하고, 학과 수요에 따라 일부는 오프라인 평가, 일부는 전교협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평가를 활용한다. 오프라인 평가와 온라인 평가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미성취자에 대해서 향상교육을 운영한다. 향상교육은 5주 10시간 이상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맡는다. 교육이 끝나면 사후평가(2차평가)를 실시해 향상 정도를 진단한다.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후평가 결과 미성취한 학생이 있다면 즉시 집중관리반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반은 내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소규모 그룹 학습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교육이 끝나면 재평가(3차평가)를 통해 향상도를 진단한다.

재평가에서도 성취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온라인 어학강좌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신의 수준을 언제든지 진단할 수 있는 수시평가의 기회를 준다.

아울러 기초학습능력을 일정수준 성취한 학생들에게는 국어능력인증시험, 토익, 토익스피킹 등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GDLang IT'라는 이름의 온라인 어학/IT 강좌를 지원하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밖에 국어, 영어 등 기초학습능력을 평소에 다질 수 있도록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블랙보드 게시,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학생 다양성과 자율성 증진

기초학습능력은 한 순간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기 또는 1회성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우선 신입생이 입학하면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후에 학과 수요조사를 통해 **신입생 특강**을 진행한다. '리포트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전략', '노트필기 전략', '팀 프로젝트 기법' 등 대학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해야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로 진행한다.

동시에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과 교수님과의 유대관계를 다지면서 전공 관련 견학, 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학기 단위의 **사제동행 튜터링**을 운영한다.

학기별로는 학사경고자, 주의자 등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코칭이 진행되고,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학생 경진대회, 학습 다양성을 위한 이러닝 스튜디오 구축 및 정규/비정규 이러닝 강좌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뉴스레트, 리플릿, 포스터,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동시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 특강**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과 대학에서의 학습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초기에 '리포트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전략', '노트필기 전략', '팀 프로젝트 기법' 등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신입생 특강으로 인해 입학 초기에 대학에서의 학습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실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동반성장 튜터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튜터링 프로그램은 센터가 처음 설립된 2013년부터 운영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교수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튜터링이 운영되고 있다. 사제동행 튜터링은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전공 관련 분야를 견학하거나 관련 박람회를 관람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다져 학습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운영된 튜터링 팀들은 각종 외부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컴퓨터정보과 튜터링 팀이 I-TOP 경진대회에 나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취득, 전공분야 성적 향상 등의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맞춤형 학습코칭 학사경고자, 학사주의자 넓게는 장애학생까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코칭을 진행한다. 꼭 학습부진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한다.

학습유형검사는 U&I 검사지를 활용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학과별 1명 이상, 31명의 교원과 센터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학습코칭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2016년에 70%, 2017년 1학기에 78%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해소했거나 성적이 향상됐다.

맞춤형 학습코칭은 학습 기술에 관한 코칭도 이뤄지지만, 주로 이뤄지는 것은 학습 그리고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년 동안 학습하는 습관이 올바르게 없었던 학생들을 단기간에 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습 기술을 코칭하기에 앞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늘 너를 믿고 있어'라는 믿음을 주는 활동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그 이후에 장단기 목표설정, 시간관리, 기타 학습기술에 대한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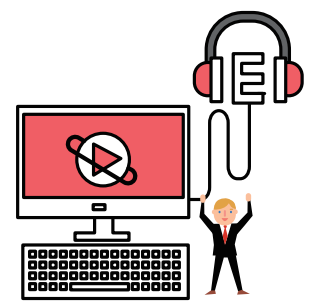
학습법 특강 아나운서, 유명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 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인 학습법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학생경진대회 다독왕 선발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학과 홍보 UCC 공모전,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자신감 향상, 성공의 경험 등을 제공하여 학습에서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튼튼한 기초학습능력 위에 견고한 직무역량을 쌓고 있는 강동대학교 학생들의 미래는 밝다.



글. 이영경
사진. 팀 맥스파워 제공

자동차 없는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속도감과 엔진음에 매력을 느끼고,
맹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을 사랑하는 모터스포츠 전문회사 박상현 대표.
그는 한국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힘쓰며 모터스포츠와 함께 성장과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모터스포츠에 인생을 올인해 뜨거운 도전을 잇는 멋진 남자.
박상현 대표는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위풍당당한 전문대학인이다.

가슴 뛰는 삶을 향한 열정의 질주



박상현

‘팀 맥스파워’ 및
‘포스모터스’ 대표,
휠스핀(Team WSP) 감독



전문대학에서 찾은 삶의 의미

“학창시절 관심사는 오로지 자동차뿐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박상현 대표는 어릴 적부터 온통 자동차에 관심을 쏟았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레이스를 하겠다고 결심할 만큼 그의 가슴은 오직 자동차에만 두근거렸다. 애당초 자동차와 관련 없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뭐라든 그는 자신이 진정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선택했다. “자동차 없는 삶은 제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자동차가 좋았고, 그렇게 모터스포츠에 열광했다.

다행히 국내에 모터스포츠를 전공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청춘의 목표는 ‘아주자동차대학 입학’으로 굳혀졌다. 입학 당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던 터라 변호사 공증을 받는 등 온갖 노력 끝에 만난 전문대학은 그가 삶을 사는 이유이자 기쁨이 되었다.

전문대학에서 자동차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의욕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모터스포츠 분야에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더해갈 즈음, 다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아주자동차대학은 매년 학교 레이싱팀 선수를 선발해요. 레이스를 경험하고 싶어 치열한 준비에 돌입했어요.” 수업이 끝난 평일 저녁에는 근처 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각종 레이싱 경기에서 깃발을 흔드는 마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용돈으로 여러 경기에 참여해 레이스 감각을 키워 갔다.



오직 대학팀에서 레이스를 경험하기 위한 그만의 준비 단계였던 셈이다. 패기와 열정의 기운 가득 찬 청년은 꿈에 그리던 아주자동차대학 레이싱팀 선수로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에게 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가슴 뭉클한 추억이다.

열정과 도전으로 채워 온 시간

“모터스포츠를 전공하면 대개 ‘드라이버’나 ‘레이싱 미케닉’ (정비사)의 두 가지 직업군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지만 전 방향을 살짝 틀었죠.”

박상현 대표는 모터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에 눈을 돌렸다. 일반인들도 쉽게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합을 주최하고, 모터스포츠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레이싱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아주자동차대학 창업지원센터에서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동문들과 함께 ‘팀 맥스파워’라는 모터스포츠 전문회사를 창업해 국내 유일의 ‘집카나 챌린지 대회’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초창기 3년간은 수익 창출이 없던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모터스포츠를 갈망하는 그의 열정은 그를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시합에 참여하고자 수개월 간 밤낮으로 차를 만들고 경기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희열과 조금씩 인프라가 구축되어가는 보람에 그의 열정은 드높아졌다.





지난 7년간 국내에서 최장, 최대 드리프트, 짐카나 행사를 주최하는 전문 기업의 대표로 입지를 굳히면서, 감독으로도 영역을 넓혀 2년 전에는 휠스핀(Team WSP)을 창단해 국내 여러 리그의 레이스 시합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주용 차 및 각종 자동차 튜닝을 진행하는 ‘포스모터스’ 대표로도 맹활약 중이다. 안전한 모터스포츠 문화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열망하는 박상현 대표의 마음은 매년 각종 자동차 경주 대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이어져 모터스포츠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주 ‘질주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주자동차대학은 모터스포츠를 비롯해 자동차 디자인, 설계, 제어 및 진단, 디지털 튜닝,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며 원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대학 중에 유일하게 주행 실습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차량을 테스트하며 운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점도 엄청난 매력이지요.” 어떠한 대학들도 따라올 수 없는 빼어난 시설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교수들의 탁월한 실력 덕에 의지와 열정만 갖춘다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전문대학 커리큘럼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연수, 교육, 특강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찾아서 경험해보세요.” 그는 후배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전문대학 커리큘럼을 활용해 볼 것을 강조했다. 모터스포츠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면 그 지속적인 힘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면서 후배들을 따뜻하게 응원했다.



모터스포츠를 향한 끝없는 애정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일반대학조차 부실대학으로 폐교되는 요즘 상황에서 아주자동차대학처럼 특성화된 전문대학이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성을 길러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에, 박상현 대표의 모교 사랑과 자부심의 농도는 점점 짙어졌다. 지난해에는 팀 맥스파워가 주관한 ‘드리프트 머슬대회’의 출전 선수들과 함께 대회 현장에서 모은 장학금을 모교 모터스포츠 전공 재학생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 등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 말미, 박상현 대표는 다시금 모터스포츠에 대한 꿈과 열정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또, 내년 시즌에는 아주자동차대학 레이싱팀이 참관하는 경기를 도와 학교 레이싱팀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그의 말을 들으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꿈’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삶을 산다는 것은 꿈을 향한 오랜 여정인 듯하다.

이제 그로 인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밝은 청사진이 그려진다.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은 앞으로도 여전한 것이다.☺



아주자동차대학 모터스포츠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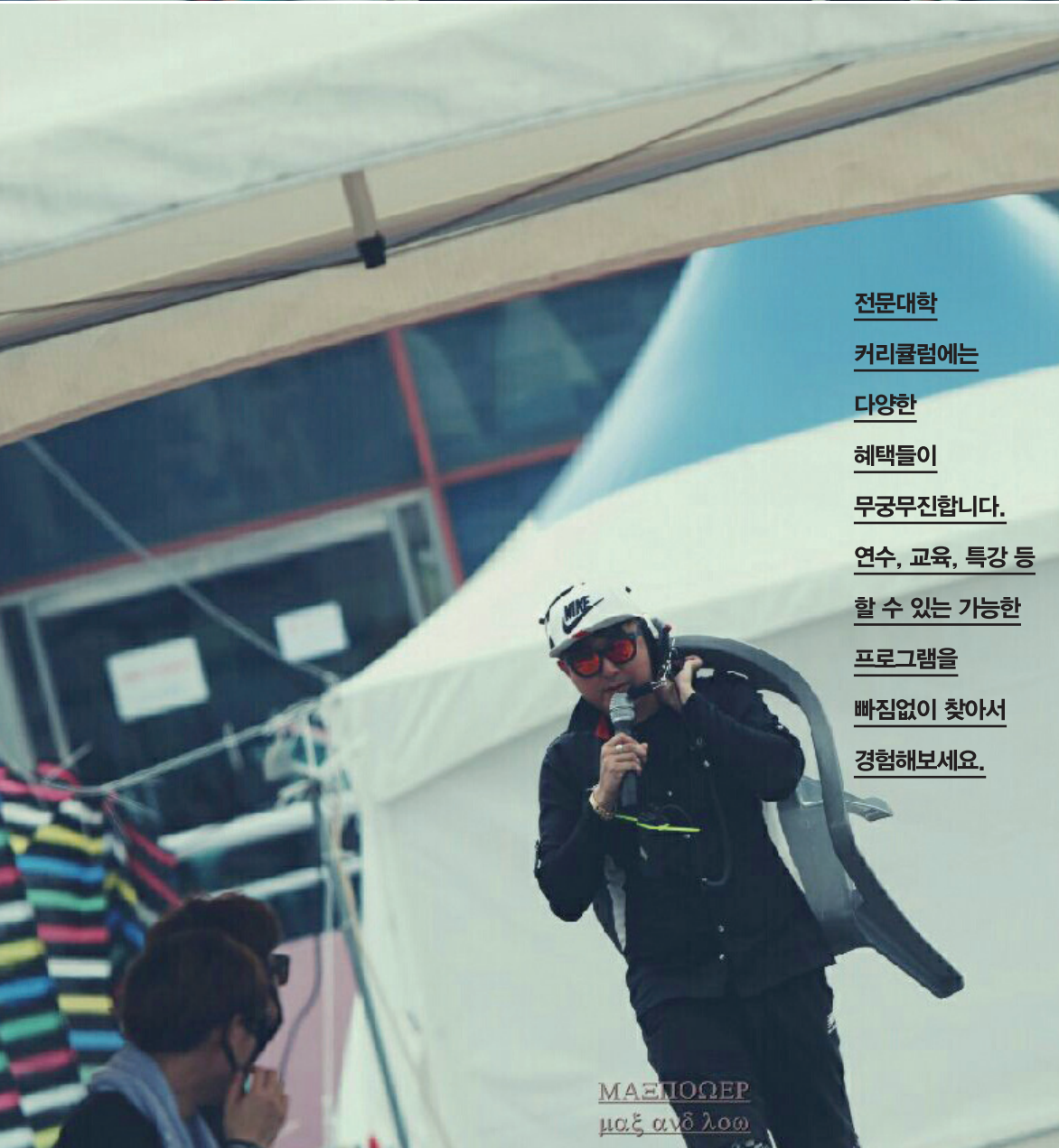


아주자동차대학 모터스포츠 전공은
모터스포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레이싱 머신을 제작
및 조정하는 미케닉, 스포츠카를 튜닝하는
튜닝기술자, 경주 대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오피셜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국내 최초로
양성하는 명문 전공이며 미래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꿈이 실현되는 전공이다.

모터스포츠 전공은 경주용 차량(카트, 포물러
머신, GT 투어링)과 교내의 레이싱 서킷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현역 드라이버와 미케닉 실무 전문가 등을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경주차의 기초지식부터
공학적 원리, 주행기술, 레이싱 기획 및
운영 등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

특히 레이싱카와 수퍼카 등 학생들이
자동차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자동차 기본
설계부터 시험 기술까지 폭넓은 경험을
습득하여, 졸업 후 자동차 관련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자동차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프로 레이싱 팀, 자동차제조 산업체,
스포츠카 및 특수차량 제작회사, 대기업 및
정부기관, 자동차 전문업체, 수입차 보전업체
및 외국인 회사, 자동차서비스 산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전문대학
커리큘럼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연수, 교육, 특강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찾아서
경험해보세요.

MAEPOW
모터스포츠

입학부터 졸업까지,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시간



삼육보건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삼육보건대학교는 '헬스케어 융·복합형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개발, 실시하면서 헬스케어 융·복합형 직업능력개발 선도대학으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S등급 최우수 대학으로서 보건계열에 특화된 취업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해외 취업과 연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앞서나가고 있다.



해외 취업 희망자 선발하는 입시 전형부터 시작

1936년 경성요양병원 부속 간호원(현 삼육서울병원)의 양성소로 설립돼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해온 보건교육의 역사적 산실로 불리는 삼육보건대학교는 학생들의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해외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는 전형이 눈에 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해외취업희망자 전형을 최초로 선발해오고 있는 것. 해외취업희망자 전형은 삼육보건대의 특성화사업과 세계로사업(K-MOVE)을 연계해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특성화사업에서는 글로벌인재양성 영어기초과정반을 이수하고, 세계로사업에서는 인성교육과 전공직무교육, 학생해외 전공연수 및 글로벌 현장학습을 이행하고 나아가 취업 전 외국인 화상 모의면접과 해외협약업체 면접 등을 통해 해외취업에 우선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2018학년도 수시 2차 모집에서도 피부관리과, 뷰티헤어과, 의료정보과에서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적응 능력, 실무 감각 기르는 프로그램 다양

해외취업희망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삼육보건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외국어 교육 등 재학생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힘쓰는 것이다.

대표적인 언어훈련 특성화 교육으로 ISC(Integration of Subject and Englis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씩 주 4시간 동안 직무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방학 때는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해 집중 어학연수를 진행한다.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및 다양한 해외 취업처 발굴 등을 통해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해외전공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학생해외전공연수에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현지 산업체에서 2~4주 동안 실습을 진행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전공실무영어회화 수강점수, 학생별 해외전공연수 계획서, 심층면접 등의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CS교육, 비즈니스 영어교육, 안전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며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삼육보건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MOVE스쿨(세계로)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에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파견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간호학과 재학생 5명이 독일 함부르크로 파견되어 4주간의 현지적응교육과 12주간의 현장실습(병원)을 통해 학점을 취득했고, 2017년에는 간호학과 김채은 학생이 선발되어 9월 초 미국 Wester Iowa Tech Community College(WITCC)공립대학으로 건너가 8주간의 어학교육과 8주간의 전공연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학기를 이수하고 있다.



자원봉사와 프론티어 프로그램도 기회

삼육보건대학교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공모한 '2016년 하계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6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도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2016년에는 글로벌 비전나눔 해외봉사대를 구성하여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봉사활동으로 인도,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로 5팀 총 109명을 하계방학 2주 동안 파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인도,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5팀 97명의 학생과 11명의 인솔자가 파견되었다. 보건대학답게 각 나라의 빈민가를 찾아가 의료봉사, 치과봉사, 미용봉사, 공중화장실 설치, 빈곤가정 지원 등 사회교육문화 복지봉사를 진행했다.

SHU FRONTIER 프로그램은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활동 목적 및 일정을 계획하여 다양한 국내외 현장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경쟁력 및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또는 해외의 선진화된 과정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최종 선발된 55명은 국내 2팀, 해외 14팀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학기 중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홍콩 ▲대만 등을 방문하여 각자의 계획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학교 각 부처와 교수, 학생이 힘을 모아 해외 진출 역량을 기르는 삼육보건대학교, 졸업생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학생해외전공연수 학생 후기



해외 취업, 불가능은 없다!

성명 : 김민주(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과 2016, 2월 졸업)

나이 : 24세

국가 : 싱가포르

취업처/부서 : Redz Group/IT Support Administration

의료정보과로 진학한 후 IT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 때문으로 학생해외전공연수를 다녀왔고, 졸업 후 해외 취업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게 되었다. IT Support라는 포지션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Redz그룹은 한국문화를 싱가포르에 정착시켜 한국에 대한 다양한 메뉴와 문화를 접목시킨 요식업 회사였다. 처음은 신입사원 입사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 업무를 위주로 했다.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내가 지원했던 포지션을 망각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나는 이사님께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다.

“내일부터는 오피스로 출근하세요. 기대가 많아요. 스펙터클한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장애물은 나의 포지션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직무능력이었다. 실상 내가 아는 관련지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하루 종일 한 가지 해결방안만을 고민하며 시간을 소모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질문이 내게로 쏟아지면 너무 급한 나머지 삼육보건대학교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곤 했다. 분명 학습한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교수님들은 감사하게도 네트워크 베이직 이론과 지식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힘든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응원과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책임감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해주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을 가장 크게 깨달았다. 미션이 떨어지면 일단 시작부터 하고 코앞에 떨어진 최우선순위의 업무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해외취업을 꿈꾸고 있을 누군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계획만 세우지 말고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부디 자신이 결정한 바를 믿어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글. 이영경
사진. 페이스스튜디오

꿈이 있는 청춘의 아름다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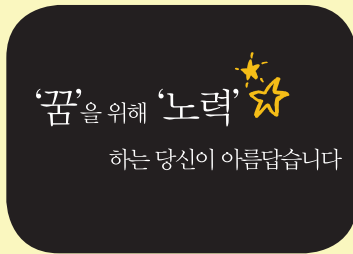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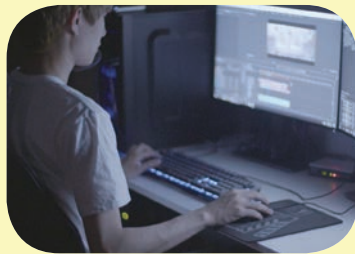


2017
대한민국 전문대학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자
원준혁 학생

전문대학 현장의 생생한 열정을 영상으로 선보인 '2017 대한민국 전문대학 영상 공모전'에서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연출과 원준혁 학생이 대상을 거머쥔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한편의 감성 광고처럼 빼어난 연출력과 영상미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전문대학인들의 열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전문대학과 함께 차근차근 성장을 꾀고 있는 원준혁 학생을 만나보았다.





스무 살,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다

‘우리는 꿈이 있다. 그래서 도전한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1분 58초짜리 영상. 짧지만 간결했고,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대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부지런히 실력을 연마하고, 앞으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진정성이 담긴 모습은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여름 방학, 학과 공지 게시판에서 우연히 ‘전문대학 영상 공모전’을 접한 원준혁 학생은 ‘어떻게 영상을 구성할까’에 초점을 두고 기획 단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때 떠오른 것은 ‘광고’였다. 광고 형식으로 연출해보자던 그의 아이디어는 주효했다. “아무래도 다양한 학교와 전공 학생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준 점이 이번 공모전 영상 주제에 부합해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광고 콘셉트로 연출하는 작품이 처음인 터라 그는 솔하게 광고를 찾아보고, 수많은 감성 광고들을 참고하면서 출연자들의 멘트 하나하나에도 진정성을 담고자 생각의 힘을 키워나갔다. 작품의 퀄리티에도 신경 썼지만, 무엇보다 기획 의도에 충실히 하는 것에 더 집중했다.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작품에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간절함과 열의로 꽃핀 결실

“전문대학을 어떻게 보여줄까. 전문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는 어떻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전문대학에 대한 시선이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저는 전문대학생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문대학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공모전으로 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보다,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이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간의 경험과 실력이 응축된 작품은 전문대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의 간절함까지 더해져 높은 완성도를 이뤄냈다. 전문대학인들이 진정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거세게 담금질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연출했고, 출연자들 역시 꾸밈없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준 열의로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일찌감치 영상 제작 전문가의 꿈을 품은 원준혁 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서울 기능경기대회 영상 부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그 외 다양한 작품으로 꾸준히 꿈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한국영상대학교에 입학

한 스무 살 청년은 전문적인 실습 장비를 갖춘 학교 시스템과 현업에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교수들의 전문성과 다양성 넘치는 수업 덕택에 작품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며 겸손해했다.

영상 말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흐르는 멘트처럼, 이번 원준혁 학생의 수상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그간의 땀방울이 이뤄낸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눈부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그의 열정은 전문대학에서 날개를 단 셈이다.

원준혁 학생은 본인이 간절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한다면 누구나 분명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당선 팁을 살짝 전하기도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색깔과 개성을 담아 퀄리티와 작품성 넘치는 다양한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영상감독으로 성장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옛된 청춘의 다부진 각오가 펼쳐낼 앞으로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꿈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 이제 다시 진격이다.🎥



글. 최원근
사진. 충남도립대학교



©한화큐셀

태양광 주목하던 충남도립대학교
S동아리 학생 24명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다!



태양광 셀 생산규모 세계 1위 기업에 입성

충남도립대학교 S(Solar)동아리 학생 24명이 한화큐셀코리아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실력으로 합격을 거머쥔 학생들. 그들은 하나 같이 동아리 활동과 학교의 지원(충남도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이 합격의 키워드라고 강조한다.

박재성 학생(전기전자과)은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태양광에 가장 끌렸습니다.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S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산업에 대해 전망하거나 기업을 분석하는 일이 기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학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기업 분석과 전망, 자소서 쓰는 요령, 면접 대비에 대해 지도해주셨어요. 이후엔 저희끼리 따로 모여서 스터디를 했습니다”라며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이 아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실력으로 쌓여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탈원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3020정책’ 등을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급성장은 예정된 미래인 셈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꿈을 키워온 이들이 바로 박재성 학생이 속한 충남도립대학교 S동아리 학생들이다. 명확한 목표와, 그에 합당한 실력을 키워온 결과 대기업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참고로, S동아리 학생 24명이 합격/입사한 한화큐셀코리아는 한화 계열사로, 태양광 셀(태양전지) 생산규모 세계 1위의 기업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매출액 1조 2780억 원, 영업이익 596억 원을 기록했다.

차별화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기업인 ‘한화큐셀’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차별화된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열정을 다해 합격을 거머쥔 수 있었다.

사실 S동아리는 태양광 분야의 취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학일자리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신생동아리다. 더욱이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

기적인 협업으로 주요 태양광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지역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한화큐셀코리아 공채를 알게 된 학교는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취업 전담 컨설턴트 6인의 밀착지도를 진행했다. 매일 해당 기업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꾸준히 높였고, 수차례의 모의 면접을 통해 취업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면접을 꾸준히 진행하며 난해한 질문에 대응하는 법부터 면접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처 훈련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학점도 평균 수준인 학생들이 많았지만 세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산업 이해도와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특화된 면접 전략 등을 강의한 게 주효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총장은 “산업과 기업을 미리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성공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센터와 일자리 유관 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로 유명한 충남도립대학교는 2017년 8월부터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입학금과 전형료를 전액 폐지했다. 당시 허재영 총장은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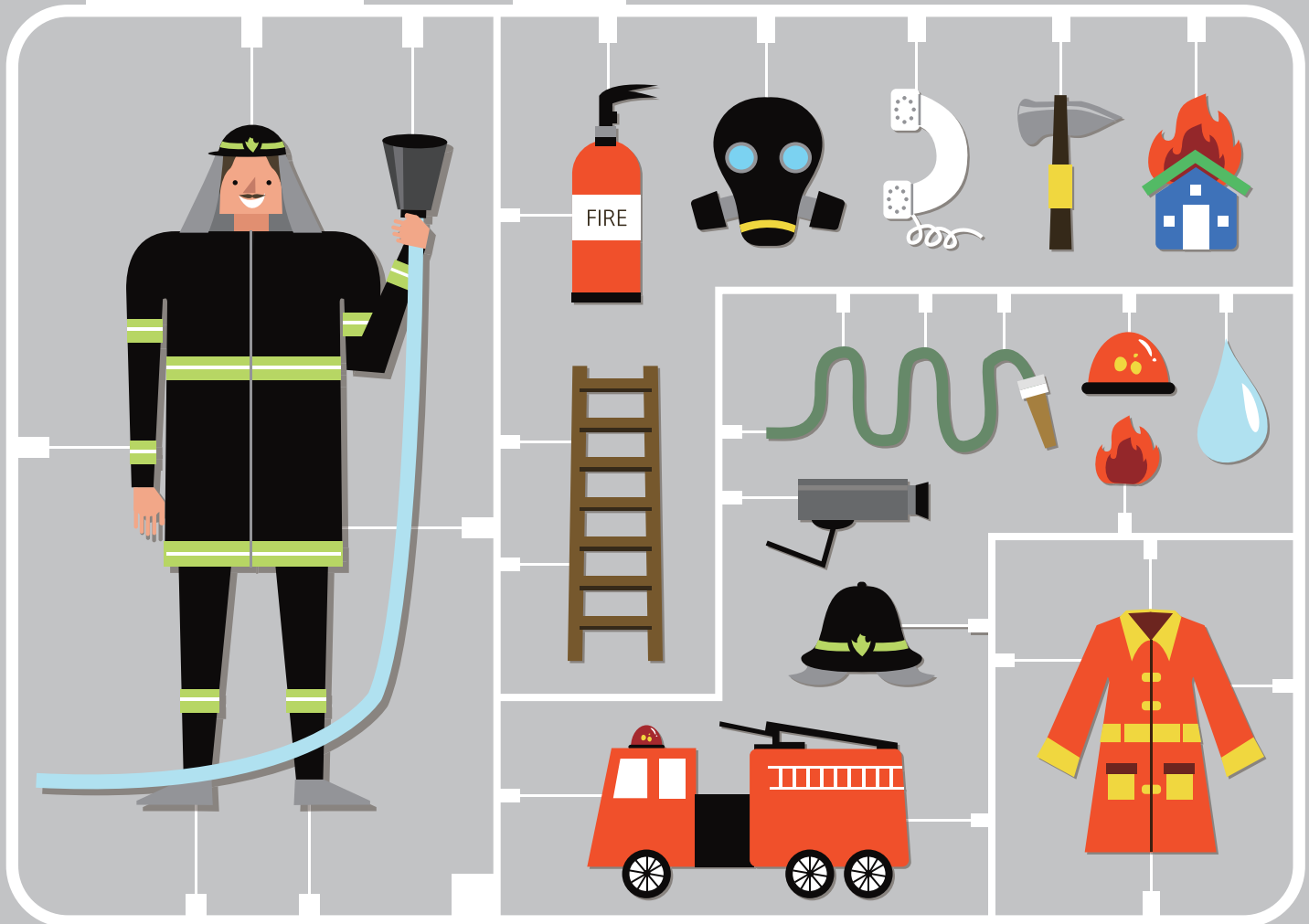
꿈과 열정으로 실력을 키운 학생들, 그들을 전후좌우에서 지원하며 산업형 인재로 육성해낸 대학. 이것이 바로 스펙이 아닌 실력을 교육하는 전문대학의 힘이며, 경쟁력이자 미래일 것이다.📍



현장에 강한 소방 전문 인력이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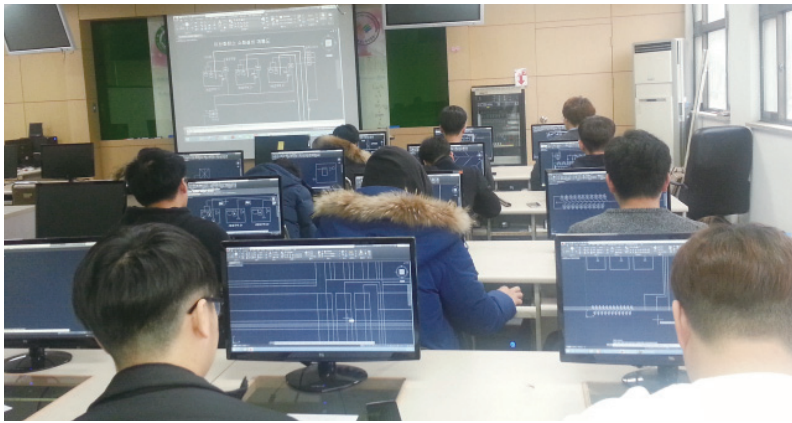
JOB - FIREFIGHTER

ITEM



현대사회는 산업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한 심층화로 인하여 자연적, 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생활에 있어 불안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적 구조 속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태풍,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등 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연구인력과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최신의 물자자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통해 재난의 위협요소와 대응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소방안전과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할 소방공무원과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의 재난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step1. 소방설계



step 2. 자탐설비 제작

현장중심의 소방인력 양성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는 학과 개설 12년을 맞이하는 동안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또한 소방펌프차, 소방전기시설 실습체험장, 소방기계시설 실습체험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키우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강조되기 이전부터 실습과목에 대해 **원 스톱(One-Stop: 설계-제작-측정 및 점검-분석)시스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금의 NCS기반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전문가를 겸임교수로 50% 이상 확보하여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재학생 1인 1업체 산학협력체결을 통해 현장실습과 체험교육, 취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학협력가족회사 협력체결은 28개 업체로 대학의 취업지원처와 연계하여 점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학협력가족회사를 통해 지난해 졸업생 가운데 취업대상자 28명 중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step 3. 측정 및 점검



step4. 분석

소방서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능력 키워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현장실무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4주 이상의 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강북소방서를 비롯한 서울 수도권 6개 소방서와 소방설계, 시공, 점검 등 소방전문업체 15개 등 총 21개 업체에서 4주동안 전원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키웠다.

특히 강북소방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남현우 학생의 경우 소방서 119 구조구급대원과 동승실습을 진행하면서 탁월한 구조구급 능력을 발휘하여 현지 소방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학의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에서 현장감 넘치는 수기를 작성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인근의 영월소방서와 강원도소방학교에 협조하여 미래의 소방관으로써 자질을 갖추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입소하고 있다. 영월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완강기를 이용한 피난 및 요구조자 구조, 방열복 및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지하 농연훈련장에서 인명구조하기 등 실제상황처럼 화재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강원도소방학교에서는 대학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대형 고가 장비를 중심으로 한 소방시설 체험실습, 응급처치, 피난시설, 공기호



구급차 동승 현장실습



흡기 및 방수체험, 하강 및 도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명구조와 화재대응 실전능력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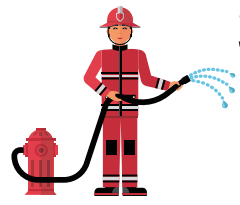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인근의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발전본부와 (주)쌍용 등 대형 산업체를 방문하여 설비별 화재경보시스템과 수계소화 및 가스계 소화설비, 피난시설 등 대학에서 배운 정보 및 소화설비들의 현장적용 사례를 학습하여 현장소방기술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육각수의 밤

소방구조구급과에서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과 관련하여 소방설비 전기, 기계 분야 산업기사와 위험물 통합관리자 자격증, 응급처치 전문가 자격증 등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졸업대상자 37명 중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했다.

‘육각수의 밤(homecoming day)’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교류행사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자와 소방전문산업체 취업자를 재학생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애교심을 높이고 네트워크로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소방공무원시험 정보공유를 위한 특강과 취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재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재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육각수는 6개의 물방울로 재난의 위험에서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방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방 계급장의 모양이다.

지역사회 함께하는 맞춤형 학과 특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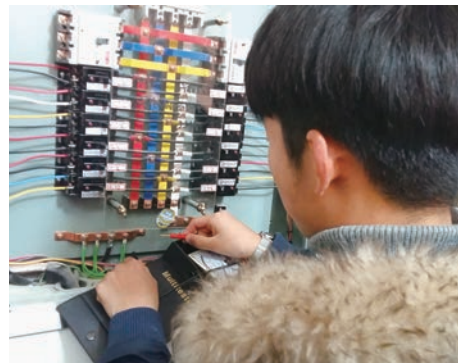
소방구조구급과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및 소외계층의 전공 관련 애로 기술 해결을 목표로 학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지·관광분야 명품 사회서비스 인재양성’의 대학 특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는 전공기술을 현장에 접목시켜 전공실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의 예산을 지원 받아 영월관내 복지 및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매년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예비소방점검을 통해 사전에 소방시설의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외된 영세 사업장이나 개인의 경우는 직접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시 조기진압과 피난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학과 전공동아리와 연계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에 사각지역에 놓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9 Safe Guard’ 전공동아리 활동

소방구조구급과에는 소방공무원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동아리와 대외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 ‘119 Safe Guard’ 전공동아리는 인근 초·중·고교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법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 20여 명은 대부분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로 학과 지도교수가 지역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거나 신청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피난시 주의사항 등 주로 관련 전공 기자재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소방관을 꿈꾸며



임승미 학생(16학번)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단양군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는 '꿈이 있는 청소년 페스티벌'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통한 교육기부 활동

관내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는 점도 눈에 띈다. 매년 영월중학교를 비롯한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진로 탐색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학생들의 진로 체험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자유학기제 참여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에서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들을 위하여 PPT를 통해 학과소개 및 진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분야별로 학과의 소방시설 실습체험장에서 체험학습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체험학습 후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심층진로탐색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서 2016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에 맞추어 일반대학 경영학과를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포기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과를 찾다가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공급과를 선택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소방공무원 채용방식과 체력검정, 전공이론과 현장실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실천방안에 대해 월별, 주차별로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낮에는 강의실에서 밤에는 기숙사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체육관에서 체력을 키우고 국가근로장학생으로도 일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 3가지 목표에 대한 실천사항을 점검하면서 영어토익 845점, 국가기술자격증 2개 취득(소방설비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하며 2가지 목표는 초과 달성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방공무원 합격, 마지막 목표 한 가지 달성을 위해 오늘도 주차별 계획표에 빨간줄 두 줄을 그으며 내려갑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방황이 있었지만 때마다 교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교수님들께서 학기초에 2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실천해야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셨던 것이 대학 생활의 초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공급과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내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여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높이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글. 윤인영



안경광학과에서는 의학과 광학을 접목시켜 안경의 조제, 가공 및 처방에 필요한 이론과 임상을 익히고, 눈의 생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시기능에 대한 교과목을 익히게 된다.

〈안경학〉은 입문 과정으로 안광학, 안과학, 조제 및 가공, 재료학 등의 과목을 포함한 총괄적인 기초이론을 취급하며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안광학〉 과목은 시기능 검사 시 필요한 기본적인 기구의 광학적 특성 및 그 원리를 숙지하고 눈의 기하광학적인 원리와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안의 과학적 교정 원리를 배운다.

〈안과학〉은 눈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시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을 습득 하여 시기능 검사와 양안시 이상 분석에 대하여 학습한다.

〈조제 및 가공〉 과목은 안경조제 및 가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처방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켜 광학적으로 오차가 없는 안경의 조제 및 가공에 대한 전문 안경사로서 갖추어야 할 안경조제가공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초과목 기본시각관리, 기초시광학, 인체생물학 등

실무과목 콘택트렌즈 관리 및 실습, 캡스톤 디자인, 특수안경 조제가공 및 실습, 기본안경관리 및 실습 등

주변을 둘러보면 둘 중 하나는 안경을 쓰고 있을 정도로 안경 사용자가 무척 많다. 젊은 층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영상매체, 스마트 기기의 증가로 안경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안경 전문가의 할 일도 많다.

안경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시력검사를 통하여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고객의 눈 상태나 안경의 착용과 시력의 변화, 시력보호를 위한 방법 등 고객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며, 시력 보조도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안경사는 고객 관리자로서 재고관리능력, 마케팅능력이 요구되며 고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객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며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정한 용모와 태도가 필요하다. 또 안경 제조를 할 수 있는 정교한 손동작이 요구된다. 현실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자기통제 능력, 정직,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대경대학교 안경광학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은가요?

광학기사, 안경사 등이 대표적이다. 광학기사는 광학기기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초기계 및 기초전자 부분의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쌍안경, 야시장비, 디지털 카메라 등 군용 및 상용 광학기기를 조립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도적 기능 업무를 담당한다. 안경사는 안경광학(전문대학 이상)을 전공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력의 교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검사와 처방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등을 조제, 가공하여 제공하는 일을 한다.



비춤안경원(길음점)
원장 이형균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안경광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경사가 되어 안경원을 창업하게 되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능력껏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해 보여서 안경광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안경광학과를 나오면 안경원에 취업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안경원뿐 아니라 안과병원이나 기업체에 취업하는 때도 매우 많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갖춘 분야이기 때문에 학과를 다니면서 또는 졸업 후 전공을 살리면서도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서 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안경사면허 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안경사의 전문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경사의 업무는 눈이 단순히 잘 보이는 것을 넘어 시력관리를 통한 학습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 현대 사회의 각종 시각 매체로부터 눈의 보호와 안질환 예방의 차원 등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경원의 개설 및 종사, 안과병의원, 안경렌즈 및 안경테 관련업체, 콘택트렌즈업체, 광학기기회사, 안경 및 렌즈 관련 연구소, 종합병원 및 안과 병·의원 검사실 등으로 다양하다.☺

글. 박은숙

긴장감 풀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면접은?

면접의 계절이다.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큰 기대를
안고 입사지원서를 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관 앞에서 서고 있다.
그러나 면접이라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면접관에게 점수를 얻을지
막막하다. 직업인이 되기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한다.

book
면접시험에
도움을 주는
책

면접의 기술

기본 스펙으로 뚫는 1% 합격의 비밀

백승우 · 정동수 지음, 은행나무 펴냄

취업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책. 딱히 눈길 가는 스펙이라곤 없는 저자가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뒤 치열하다고 소문난 마케팅 현장에서 스스로 터득한 전략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스펙만으로도 면접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 '면접 현장에서 당신이 꼭 붙어야 할 딱 한 가지 이유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대학입시 못지 않은 취업 경쟁을 치러야 할 후배들을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선배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들려준다. 도식화된 면접정답보다는 면접을 앞둔 지원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하우를 전수한다.

책 속에서

“우리는 흔히 면접관은 질문을 하고,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후배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경찰서 취조실에서 형사와 피의자가 하는 일이지, 면접관과 지원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눈을 맞추고,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해서 성실하게 또박또박 대답하라는 충고 역시 그냥 할 수 있는 말일 뿐이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략이란 것은 거둬 말하지만 이런 현상 뒤에 숨겨진 어떤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면접관이 궁금해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예컨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적극적인 의지로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인가, 조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인가, 회사에 들어 났다가 괜히 사고나 칠 그런 인간은 혹시 아닌가, 같은 것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었느냐고 묻는 것은 괜히 그렇게 말을 시켜보는 것일 뿐이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질문도 마찬가지다.”

100% 성공하는 채용과 면접의 기술

성과기반의 채용과 구직을 위한 완벽 가이드

루 아들러 지음, 진성북스 펴냄

기업에서 좋은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인사담당자는 스펙만 보고 채용하다가 낭패 당하기 쉽다고 말한다. 최근 전문가들은 성과기반채용 방식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이 책은 세계의 수많은 일류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성과기반채용에 대한 개념, 프로세스, 그리고 실행방법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용 문제들은 한 가지 근본적이고 간단한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직무기술서를 새로 채용될 사람이 성취해야 할 성과목표의 리스트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앞서가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성과기반채용 기법은 채용 과정에서 고민하는 채용담당자와 리크루터에게 큰 도움을 준다. 채용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스킬을 바탕으로 채용 전반에 관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책 속에서

“무엇보다 대면 면접에서는 최초 30분 안에 가장 많은 실수가 생긴다. 나는 이것을 ‘결정의 순간’의 실수라고 부른다. 이런 실수의 대부분은 첫인상 과대평가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원자의 첫인상에 반응한다. 첫인상이 나쁘면 자질이 없는 지원자로 확신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은 지원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지원자가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한다. 즉,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대화하게 된다.”

“성과기반 면접 기법은 지원자가 성과 프로필의 기준과 가장 비슷한 성취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 각 성취 경험과 당시 상황에서 지원자의 실제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약 15분이 걸린다. 각 평가표를 활용한 성취 경험의 평가를 평가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원자의 업무상 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취업, 면접의 기술을 잡아라

신혜련 지음, 시대고시기획 펴냄

“이 책은 청춘이니까 아프다는 그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가 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문구이다. 다년간의 다양한 취업 경험과 컨설팅을 통해 그만큼 자신 있게 면접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매번 탈락을 거듭하는 수험생들은 마음가짐부터 면접장에서의 이미지메이킹부터 새롭게 준비해보자.

책 속에서

“면접은 준비와 연습의 결과물이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특강이나 캠프에 참여하여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면접관 앞에 서기를 바란다. 스터디 그룹에서 하는 평가보다 전문가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다.

혹시 학년별 준비 내용을 확인하니 숨이 막히는가? 취업 후 일을 하면서 힘이 들 때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들이 문득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번 지나가면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처한 이 시간, 행복하고 보람되게 보내자.”

취업의 정답

스펙쌓기로 청춘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

하정필 지음, 지형 펴냄

저자는 스펙쌓기 열풍이 잘못된 취업 준비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맹목적 스펙쌓기에 소중한 청춘을 낭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스펙만 쌓다가는 머리와 가슴이 텅 빈 청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청년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달달 외운 가식적인 대답만 늘어놓게 된다. 과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걸맞는 신종 직업이 있다. 면접들러리! 단, 보수는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스펙 덕택에 서류전형을 통과하지만, 이들은 결국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항상 제외되고 만다.

‘기업은 스펙과 OO를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인재를 원한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서 인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스펙이 아니라 OO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인사담당자와 면접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실을 몰라서(안타깝게도 스펙 중독에 빠지면 진실을 말해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무수히 많다.

OO은 바로 ‘인성’이다. 스펙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정답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취업보다 더 큰 가치인 인생의 행복을 얻는 길로 친절하게 인도한다.

책 속에서

“모두 똑같다! 이해되는가? 이게 현실이다. 이게 진리다. 조금의 가감도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다. 여러분의 학점이 2점대든 4점대든, 토익점수가 500점이든 950점이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공모전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배낭여행, 어학연수, 봉사활동 경험이 있든 없든, 그것이 대단하든 초라하든 인사담당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뿐이다. 대동소이! 똑같다! 이것이 일 년에 수만 장의 입사지원서를 만졌던 나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은 물론 전 세계의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는 자기소개서마저 똑같다는 사실이다.”



CAMPUS NEWS

11

각 전문대학 기획·홍보·입시 담당자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보도자료 및 대학 소식 등을 “전문대학 소식”에 담고 있습니다.

대학이 알리고 싶은 뉴스나 취재 내용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by1126@kcce.or.kr

방성용 홍보전략실 대리 t.02.364.1503

매달 20~22일 사이에 자료 발송 요망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1 전국 여자대학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22일 전국 7개의 여자전문대학 총장들이 '한국여자전문대학총장협의회'를 조직하고 상호 학술교류 및 업무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취·창업 활성화 방안 공동추진을 비롯해 여자대학의 정체성 공동추구,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등이다. 이어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여자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의 자리를 마련했다.

2 대한제국 황실 서양식 연회음식 재현에 참여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대한제국 황실 음식문화 연구 결과의 성과발표회 및 재현행사에 참여했다. 본 대학은 5월 17일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 문화재지킴이 협력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본 대학은 대한제국 황실 서양식 연회음식 재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고 정통 프랑스식 12코스 메뉴를 발굴해 고증했다.



삼육보건대학교

1 SHU진심나눔데이 봉사활동

본교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2일 휘경1동 주민센터 앞에서 SHU 진심나눔데이 봉사활동을 주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65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간호학과(사랑의 손길, 사랑나눔, 천사랑), 의료정보과(G.G), 아동보육과(한울), 노인케어창업과(하다쉬), 피부건강관리과(쿨리어) 등 5개 학과 7개 동아리가 주축을 이뤄 활동을 진행했다.

2 미주동문 장학금 11만 달러 기금조성 1차 8,000달러 전달

우리 대학 미주동문장학회회는 지난 10월 17일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8,000달러를 재학생 8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하러 엄기옥(8회 동문), 조상문(11회 동문, 미주동문장학회 이사장), 박혜옥(19회 동문), 김정미(25회 동문, 현 한국총동문회장), 정순주(26회 동문) 등 5명이 대학을 방문했다. 현재 미주동문장학회에 조성된 장학금은 11만 달러(한화 1억3천만 원)이다.



숭의여자대학교

1 주말예술캠퍼스 토요일문화학교 2017 꿈다락 '두근두근 두드림 TAPS' 개최

본교는 매주 토요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주말예술캠퍼스 토요일문화학교 꿈다락 '두근두근 두드림 TAPS'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본교 캠퍼스 안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7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되며, 대학의 캠퍼스 자원을 살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 '제46회 숭의여자대학교 목역축제' 개최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2학기 '제46회 숭의여자대학교 목역축제'를 개최했다. 매년 다양한 콘셉트로 진행된 목역축제는 '2017년 다같이 복고놀자'라는 주제로 열려 학과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는 주간/야간으로 구성됐으며, '제3회 Dream Maker Festival 창업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울산·경남·제주

거제대학교

1 기계공학과 이준렬 졸업생, 기계(컴퓨터응용가공) 분야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

본교 기계공학과 졸업생 이준렬(삼성중공업(주) 기원)은 지난 10월 25일 '제26회 경상남도 최고장인'에 선정됐다. 이준렬 졸업생은 중량 1만의 대형 컴퓨터수치제어(CNC) 선반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조선산업 품질 개선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기계(컴퓨터응용가공) 분야에서 최고장인으로 선정됐다.

2 조선해양공학과, 전국 학생 선박 설계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자격으로 추계학술대회 참가

우리 대학 조선해양공학과는 지난 9월 '제26회 2017년 전국 학생 선박 설계 콘테스트' 자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 대학은 지난 11월 2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상장 수여와 수상작을 전시했다. '무 평형수(Ballast water 배출이 없는) 상선 설계'를 출품해 심사위원으로부터 창의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 항공학부, '제12회 공군참모 총장배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대회' 1등 수상

본교 항공학부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션 전공동아리 재학생들이 지난 10월 21일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제12회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 시뮬레이션 대회'에 출전했다. 500명의 일반인 및 대학생들이 출전한 경기에서 항공정비과 2학년 문상훈 학생이 금상(1등)을, 1학년 정재욱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2 '2017년 대학생 금연캠페인' 금연 성공자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올해 우리 대학이 주관하고 보건소가 주최한 '2017년 대학생 금연캠페인'에 참여한 금연 성공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및 금연 성공 확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한 금연캠페인에서 95명의 신청자 중에 재학생 14명, 교직원 1명이 성공했다.



동의과학대학교

1 '장학금 사각지대 없앤다', 장학사정관제도 시행

본교는 지난 9월 27일 대학 정보관 세미나실에서 '장학사정관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본교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장학사정관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 전념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이다. 본교는 지난 9월 한 주간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대상자를 접수해 학과 교수회의 및 장학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6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총 1억 50만 원을 전달했다.

2 'IoT 융복합 드론전문가' 과정 수료식 및 발표회 열어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0일 교내 진리관 컨벤션홀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인 'IoT 융복합 드론전문가' 과정의 수료식 및 발표회를 열었다. 전자과 2학년 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00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여한 학생들 전원에게 CAD 실무능력자격 2급을 취득했다.



부산경상대학교

1 2017 추석맞이 재학생 대상 떡 배부 행사 실시

본교는 2017 추석맞이 재학생 대상 떡 배부 행사를 지난 9월 29일 본교 서문 캠퍼스 앞에서 진행했다. 2017 추석맞이 떡 배부 행사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아 본교의 전체 교수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떡을 전달한 행사다.

2 디자인뱅크스 창업동아리 전체 모임 실시

본 대학은 지난 10월 18일 교내 창조관 2층 강의실에서 디자인뱅크스 창업동아리 전체모임을 실시했다. 이날 디자인뱅크스 창업동아리 전체 모임에는 방송연예영상계열(9명), 패션·뷰티계열(8명), 디자인계열(6명), 광고마케팅과(5명) 등 총 28명이 참석했고, 창업동아리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설명과 팀별 지원금 안내를 진행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 대학일자리센터, '변화하는 물결 4차 산업혁명 시대' 특강 실시

본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교내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재학생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사튼고트 권익환 대표를 초빙해 '변화하는 물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2 대학일자리센터 주관 · 부산북부고용센터 주최, 블라인드 채용 설명회 실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교내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재학생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기관·대기업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본 대학 학생들이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ORP연구소의 강승혜 연구원을 초빙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부산여자대학교

1 특성화사업 NCS 기반 직업·직무별 취업캠프 실시

본교는 지난 9월 21~22일(1차), 9월 28~29일(2차) 경주 한화콘도에서 273명의 학생이 참가한 2017년 특성화사업 NCS 기반 직업·직무별 취업캠프를 실시했다.

2 도제프로그램의 리더십캠프 개최

우리 대학은 2017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도제프로그램의 리더십캠프를 지난 9월 28~29일 경주 드림센터에서 ASK-Ace 3기 45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성화사업 도제프로그램은 지도교수에게 인성을 물려받는 인성도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과 본 대학을 대표하는 Ace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교

1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 국가유공자분 대상 제빵 재능 기부 활동 펼쳐

본교 호텔외식조리과 2학년 학생들이 이은상 교수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 80여 명에게 생크림 롤케이크를 만들어 전달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울산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보훈봉사(앞섬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2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사업 출범식 및 워크숍 개최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7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울산과학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대학은 지난 3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에 선정됐으며, 7개 과정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5억여 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관광대학교

1 관광호텔조리계열, '2017 WACS 코리아푸드트렌드페어 & 코리아컬리너리컵' 6명 수상

본교 관광호텔조리계열 김종휘, 김지호, 강은정, 김연정, 김유미, 최민정 학생이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7 WACS 코리아푸드트렌드페어 & 코리아컬리너리컵'에 참가해 은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본교 관광호텔조리계열은 조리전시부분과 베이커리 전시부분에 2인 1조 3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창작 음식을 선보였다.

2 외국인 유학생, 제11회 전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은상 및 동상 수상

지난 10월 14일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숙소 옥(TAN SHUYU), 하제견(HE ZIZHEN) 학생이 '제11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받았다.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참여해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대회에는 중국·일본·몽골·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러시아·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서 32명이 출전해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춘해보건대학교

1 '2017년 울산청년 CEO 육성사업 창업캠프'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14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해외 및 국내 창업 트렌드와 성공 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활용 해외 선진 창업 콘텐츠 및 아이템 발굴 프로그램, 해외 선진 아이템 국내 소싱 및 벤치마킹, 선배 창업자에게 1:1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2 사회복지과, 개설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가 지난 10월 26일 개설 2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수를 심고, '20년 기억을 담다'라는 주제의 사진전과 작품 전시회 투어를 했다. 또, 사회복지사 선서식 및 동문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본 대학 사회복지과는 2018년부터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이 개설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가톨릭상지대학교

1 '제48회 다운 대동제' 개최

본교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48회 다운 대동제'를 개최했다. 본교 대운동장 야외 특설무대 및 교내 여러 곳에서 진행된 대동제는 학생들의 젊은 열정이 숨 쉴 수 있는 축제이자, 깊어가는 가을에 기쁨과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축제가 됐다.

2 일본 해외취업을 위한 산업체 발굴 및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국제교류원장 최진석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등 교수 3명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회복지법인 우에하라복지회와 해외 인턴십을 협약하는 등 해외 교류 활동을 펼쳤다.



경북전문대학교

1 김천제일병원, 본교에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본교가 지난해에 이어 김천시 김천제일병원으로부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김천제일병원은 지난 9월 25일 교내 본관 소회의실에서 최재혁 총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최재혁 총장과 이동희 상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2 호텔조리제빵과, '제1회 노보텔 엠배서더 대구 영셰프 챌린지 요리경연대회' 수상

우리 대학 호텔조리제빵과 한효정, 이주호 학생이 지난 10월 16일 노보텔 엠배서더 대구 H20 풀 사이드 바에서 열린 '제1회 노보텔 엠배서더 대구 영셰프 챌린지 요리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호텔조리제빵과 1학년 한효정, 이주호 학생이 선보인 '치킨테리를 곁들인 반야월 연근 버섯크림 아란치니' 메뉴는 적합성, 창의성, 실용성 등의 최종 심사를 통해 장려상에 선정됐다.



계명문화대학교

1 '제9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본교는 지난 9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시상식에서 '2018 평창 치어업 (PyeongChang, cheer up)!'이라는 영상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교 디지털콘텐츠 학부 2학년 백은주, 강한별, 최지원 학생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애니메이션 이미지와 실사 동화상을 합성시키는 기법(로토스코핑)으로 표현해 호평받았다.

2 성서아울렛타운에 '계명문화 청년가게' 개업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8일 대구 달서구 성서아울렛 타운 내에서 숨인숍 형태의 '계명문화 청년가게'를 개업했다. 이번에 개업한 '계명문화 청년가게'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실전 창업의 발판으로, 3개 학과의 창업동아리가 참여했다. 학생들이 직접 가게 인테리어를 디자인·제작했고, 청년가게 개업을 위해 삼성창업 컨설팅사업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구미대학교

1 세부 '팀맥스 다이브 탐팀'과 산학협력 체결

본교 스포츠건강관리과는 필리핀 세부의 스쿠버다이빙 전문 업체인 '팀맥스 다이브 탐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스포츠건강관리과 교수 및 학생 15명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스쿠버다이빙 해양실습 및 협약을 위해 세부 막탄섬에 있는 팀맥스 다이브 탐팀 리조트를 방문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과 해외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2 유학생 치안봉사대, 추석 연휴 맞아 '합동 순찰'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가 지난 9월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미경찰서와 외국인 범죄예방 합동 야간순찰을 했다. 합동 순찰대는 정창주 총장과 김한섭 구미경찰서장을 비롯해 본 대학 외국인 유학생 20명과 대학 및 경찰서 관계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합동 순찰대는 구미역, 새미마을 중앙시장 등 원평동 일대 상가와 골목길을 순찰하고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대경대학교

1 청도군과 수제 맥주 개발 보급사업 MOU 체결

본교는 청도군과 청도 맥주 개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와 청도군은 청도 특산물인 복숭아와 반시를 이용한 특색 있는 맥주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청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로 결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 일본 '카리유시 그룹'과 산학협력 체결

우리 대학은 일본 오키나와를 선도하는 호텔기업인 카리유시 그룹과 학생 해외취업 및 인턴십 등 산학협력을 위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본 대학은 호텔커루즈서비스학과, 푸드아트스쿨 등 재학생들의 해외취업과 인턴십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카리유시 그룹으로부터 특별 장학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대구공업대학교

1 (주)한국나노기술과 MOU 체결

본교는 지난 10월 12일 교내 1호관 대회의실에서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광경화방식의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주)한국나노기술과 산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히, 이번 MOU와 더불어 기계CAD과와의 상호 기술정보 교류와 교육, 취업 등을 연계한 산학협동과 3D 프린팅센터와의 교류를 협약했다.

2 호텔외식조리계열, '제6회 달성(향토, 전통) 음식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4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대구 달성군이 개최한 '제22회 달성군민체육대회'에 참가했다. 1만 6,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부대행사로 경기장 옆 다목적체육관에서 '제6회 달성(향토, 전통) 음식경연대회'가 열렸다. 본 대학은 모두 여섯 팀이 참가해 참가자 전원이 한국조리협회장상을 받았다.



대구과학대학교

1 여자유도부, 2017 추계 전국 남·여 대학유도연맹전 여대부 종합우승

본교 여자유도부는 지난 9월 20~22일 전북 순창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추계 전국 남·여 대학유도연맹전'에서 여대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본교 여자유도부는 결승에서 경기대를 물리치고 여대부 종합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또, 개인전에 출전한 황채림(-48kg) 선수가 금메달, 이소라(+78kg) 선수가 은메달, 임진아(-70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2 2018학년도 수시면접 실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018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장을 학과진로체험과 연계한 행사로 꾸며 면접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면접 프로그램은 학과 교수와 지원자 간의 인성과 적성을 알아보는 1대1 심층면접과 가산점에 포함되는 외국어 능력 테스트 실시 등 대학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구보건대학교

1 DHC최고위과정 톡톡 튀는 프로그램 눈길

본교 DHC보건의료산업최고위과정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눈길을 끌었다. 2기 과정은 지난 9월 14일 개강해서 12월 7일까지 12주간 이어진다. 10월 12일은 오페라의 날로 진행됐고, 10월 20~21일은 본교 보건수원에서 워크숍을 했다. 11월 첫 주에는 간호학과 박희옥 교수가 BLS(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DHC최고위과정 회원들이 BLS 자격을 취득했다.

2 지역 주민 대상 신체·정신 케어 시작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주관자는 LINC+사업단 웰니스토탈케어솔루션센터다. 웰니스토탈케어솔루션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4일간 근골격계에 만성 통증이 있거나 체형관리에 관심 있는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 시범 운영을 펼쳤다.



선린대학교

1 학술제 및 졸업작품전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27일 교내 만나관에서 응급 구조과 학술제를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유아교육과, 보건행정과, 간호학부,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시각디자인계열 등이 참여한 학술제 및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응급구조과 제22회 학술제에는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 대처 및 구호활동이 시연됐고, 캡스톤 디자인 논문경진대회에서는 4편의 논문 발표를 통한 학술제도 열렸다.

2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산학협력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9일 교내 인산관 회의실에서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체결에서 양 기관은 산학연계 체계 확립과 교과과정 연계 및 학술정보(강의)를 위한 인적 교류, 현장연수 기회 제공 및 학생의 취업 연계 등의 협력을 나누기로 했다.



수성대학교

1 부모 병간호를 위해 4시간 등·하교하는 효자 대학생 격려

본교 김선순 총장은 부모 병간호를 위해 고향 집에서 하루 4시간씩 등·하교하며 학업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은 '효자 대학생'인 사회복지과 1학년 류지훈 학생에게 금일봉을 주고 격려했다. 류지훈 학생은 한국일보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된 화제의 인물이다.

2 드론 페스티벌 개최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드론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1회 수성 드론 페스티벌'을 교내 본관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세계 최초 드론으로 영화를 촬영한 (주)그리폰다이나믹스 등 가족회사 11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회사는 임무형 드론체험 활동인 'Drone Lifesaving Contest'와 코딩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을 선보였다.



안동과학대학교

1 뷰티아트과, IBEAC '2017 서울 국제 뷰티아티스트 엑스포 콘테스트'에서 상 휩쓸어

본교 뷰티아트과 재학생 22명은 지난 9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 뷰티아티스트 엑스포 콘테스트' 미용 분야에서 그랑프리 수상했다. 이번 IBEAC은 국내 및 중국, 베트남 등 총 18개국,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본교 뷰티아트과는 총 22명이 참가해 18명이 웨딩업스타일, 네일아트, 헤어미용, 피부미용 부문에서 그랑프리 3개와 대상, 금상을 받았다.

2 2017학년도 중국문화탐방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재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중국 하남성 삼문협직업기술대학교 및 주변 문화유적지에서 '2017학년도 중국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자매대학인 삼문협직업기술대학교 및 삼문협시, 서안 진시황 병마용, 정주 소림사 등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영남이공대학교

1 평생교육원, 미용장 배출의 메카

본교 평생교육원 헤어미용장반의 양선영 씨가 '제62회 미용장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미용장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 미용분야 최상급 숙련기술과 지도능력을 인정하는 자격 시험이다. 양선영 씨는 미용장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합격한 보기 드문 경우이다. 본교 평생교육원 헤어미용장반은 양선영 씨를 비롯해 지난 4년간 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 전문대학 공학도 종합설계 경진대회

우리 대학 천마체육관에서는 최근 전국 전문대학 공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캡스톤디자인 등 공학기술을 활용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평가받는 공학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공학기술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9개 전문대학에서 총 18개 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영진전문대학

1 '제2회 해외취업박람회' 해외 21개 기업 참여

본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내 정보관 등에서 일본과 호주의 21개 기업 인사 60여 명을 초청해, '2017년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 열린 박람회에는 일본 라쿠텐을 비롯한 IT 분야 10개 회사, 기계전자 분야 5개사, 관광서비스 분야에 일본 (주)간사이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더 그레이스호텔 등 6개 해외 기업들이 참여했다.

2 공군부사관학군단 1기 졸업생, 후배사랑 장학금 기탁

우리 대학 군부사관학군단 1기 졸업생들이 총동문회를 결성하고 지난 10월 24일 대학을 방문해 학군단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공군 RNTC는 2015년 본 대학에 창설됐다. 올해 3월엔 1기 29명 전원이 공군 하사로 임관돼 복무 중이며 내년 3월에는 2기생 32명이 임관될 예정이다.



포항대학교

1 독도지킴이 활동 펼쳐

본교는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26~28일까지 학생자치기구 주관으로 독도 주권 의식 확립을 위한 '독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학생과 교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독도를 직접 방문해서 독도수호의지를 다지는 한편, 독도수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독도 방문 여행선에 동승한 시민들에게 준비한 300여 개의 태극기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2 포항시II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리원 집합교육 및 특성화 교육 실시

우리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포항시II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1월 9~10일 교내 성실관에서 포항시 남구 관내 어린이급식소 조리원을 대상으로 '2017년 조리원 대상 집합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싱겁게 먹기 실천을 위한 '저염 간장 만들기'와 주방과 조리 기물, 조리원의 위생관리에 대한 '어린이급식소 맞춤형 CCP1 개인위생'으로 구성됐다.



호산대학교

1 박소경 총장, 전문대학 잡매칭 업무 협약식 참석

본교 박소경 총장은 지난 9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 잡매칭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용보증기금과 대구 경산지역 9개 전문대학 간 중소기업 일자리 및 전문인력 취업 지원을 위해 개최됐다.

2 유학생들 '고향 요리 경연대회' 열어

우리 대학은 추석을 맞아 '제1회 외국인 유학생 고향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별 고유음식을 소개함과 아울러 유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본 대학 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베트남 유학생 52명과 중국 유학생 26명 등 78명이 6개 팀으로 나뉘어 경합을 벌인 후 참가 학생들은 다른 팀의 요리를 시식하며 우정을 나눴다.



인천·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2개 전문대학이 참여했다. 개막 첫날인 11월 2일에는 수많은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행사장에 몰려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했다.

2 사회복지과,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축제 수익금 기부

우리 대학 사회복지과는 지난 한울제 주점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올해의 기부금은 총 80만원으로,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40만 원)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40만 원)에 전달되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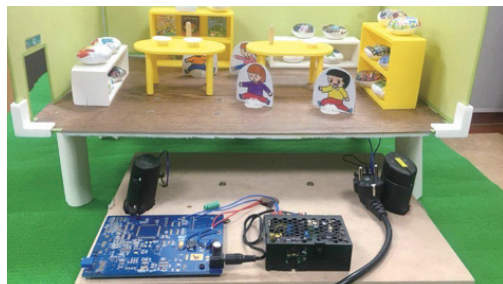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1 영유아보육과, 영유아 지진대피훈련 교구 특허출원

본교 영유아보육과는 영유아용 '지진대피훈련 안전 교구'를 특허 출원했다. 영유아보육과 2학년 학생 5명과 지도교수가 개발한 이 교구는 놀이를 통해 지진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피요령을 습득할 수 있게 고안됐다.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해 3D 프린트를 활용하여 이 교구를 제작했다. 영유아보육과는 특허를 냈고, 상용화를 거쳐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2 세무회계과, 공인회계사 합격자 배출

우리 대학 세무회계과 출신 남상헌 씨가 올해 치러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남상헌 씨는 병역을 마치고 2015년 복학하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도전 끝에 마침내 합격했다. 본 대학 세무회계과는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어, 재학생 100%가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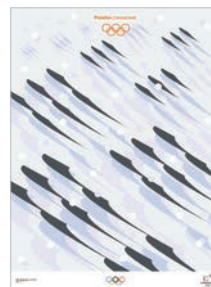
계원예술대학교

1 김재영 동문의 작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 포스터로 선정

본교 졸업생인 김재영 씨(시각디자인과 15학번)의 포스터 작품 '태백'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 포스터로 선정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전시됐다. 김재영 씨의 포스터 '태백'은 태백산맥이 겹겹이 쌓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한국의 모든 산맥과 연결된 태백산맥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올림픽 정신이 담겨있다.

2 '제24회 계원조형예술제' 개최

우리 대학의 특별한 축제, '제24회 계원조형예술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교내에서 개최됐다. 올해 계원조형예술제의 주제는 'Play! Kaywon'으로 진행돼 졸업예정자 총 1033명(935명-전문학사, 98명-전공심화)의 1년간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학과별 전시작 중 우수작으로 뽑힌 34개의 작품은 대학 내 사립미술관인 KUMA에 전시됐다.



국제대학교

1 해외취업프로그램 운영 첫걸음

본교는 재학생 해외취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1월 14일 취업팀과 취업담당 교수, 협조부서, 외부 업체 등 관련자들이 모여 해외취업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본교는 차기년도부터 해외취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을 발굴해 1학년 과정에서 어학 능력을 지원하고 해외취업프로그램 별도의 특별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 정운찬 전 국무총리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옴니버스 강좌 '꿈이 있는 삶'은 지난 11월 17일 국제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정운찬 동남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을 초청해 '한국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양극화'라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규제개혁과 교육, 사회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동원대학교

1 미국 피어스 대학과 MOU 체결

본교가 미국 피어스 대학(Pierce College)과 상호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8일 협약식에는 피어스 대학 미셸 L 존슨(Michele L. Johnson) 총장을 비롯해 명 박(Myung Park) 국제학부 처장이 참석했고, 본교 측에서는 모영기 총장과 행정부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2 민·관·학이 함께하는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 김장체험 행사

지난 11월 5일 우리 대학 유학생 34명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김장 체험 행사'가 경기 광주시 남종면에서 개최됐다. 본 대학,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경찰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정착과 문화적 소통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문화행사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 본 대학 전문학사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참가했다.



부천대학교

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 운영

본교는 지난 10월 19일 부천시 관내에 위치한 수주중학교 학생들 234명을 대상으로 8개 학과 강의실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총 2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별 특성 및 전공체험 방향 등을 간접 경험하고 있다.

2 2018학년도 수시 1차 면접전형 실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면접전형'을 실시했다. 2018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 모집을 9월 마감한 결과 총 17,362명이 지원했으며,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은 12.91: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 항공서비스과는 51.3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원과학대학교

1 미국 피어스 대학 총장 본교 방문

미국 피어스 대학(Pierce College)의 미셸 L 존슨(Michele L. Johnson) 총장 일행이 지난 10월 18일 본교를 방문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교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2 '2017 산학협력대전 비마엑스포'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내 신텍스 홀에서 2017 산학협력대전 비마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학과들의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전, 1팀-1프로젝트 작품전, 가족회사 워크숍,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성과전시회 등 다채로운 산학협력 결과물의 전시 및 발표로 이뤄졌다.



신구대학교

1 본교 식물원, '멸종위기 식물 보급 활동'

지난 11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 멸종위기 식물을 지키는 대체 이식지가 조성됐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본교 식물원이 멸종위기 식물 보급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본교 식물원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지난 201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생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2 본교 식물원, '김치나눔행사' 이웃에게 사랑을

우리 대학 식물원의 '2017년 김치나눔행사'가 지난 11월 17일 본 대학 식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본 대학 식물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6년째 진행해오는 행사로, 독거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었다.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이 모여 김장부터 포장까지 진행했으며, 참사랑 복지회를 통해 김치를 전달했다.



여주대학교

1 '소양천 살리기 정화운동' 환경부장관 표창

본교가 지난 11월 16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17 한강유역 포럼 및 한강 상·하류 화합의 날 기념식'에서 '소양천 살리기 정화운동'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본교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개선과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2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 장관 방문

지난 11월 22일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앞서 11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이념 마지도프 고등교육부 장관이 우리 대학을 공식 방문했다. 양측은 본 대학이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형 산업대학교 설립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정서 체결에 관한 실무 절차를 조율했다.



연성대학교

1 호텔외식경영전공 김진숙 교수, KBS '2TV 생생정보' 추석 기획 방송 출연

본교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전공주임 김진숙 교수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대한 생생한 현장과 유익한 정보,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KBS '2TV 생생정보' 추석 기획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진숙 교수는 지난 10월 2일 저녁 6시에 방송한 '우리가 궁금한 네모'라는 코너에 출연해 명절 요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 사회봉사단 M·M Day (2017년 2학기 한국어멘토링) 진행

지난 10월 17일 교내 학생복지센터 A세미나실에서 한국어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한 멘토(본교 학생, 멘티(한국어학당 소속) 각 24명씩 48명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오리엔테이션은 대외협력단장 최윤선 교수의 격려 인사와 사회봉사단 현인순 단장의 멘토, 멘티, 멘토링에 대한 이해 설명과 각자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산대학교

1 '제8회 한국전문인대상 교육부문 대상' 수상

본교 정영선 총장은 지난 11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8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문' 대상을 받았다. 정영선 총장은 2016년 12월 취임 이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해진대학 사업 선정 등에서 성과를 얻었고, 현장중심 밀착형 인재를 양성해 왔다.

2 '총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행사 진행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23일 교내 학생회관 카페테리아에서 '총장님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대학홈페이지 '총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오던 정영선 총장이 온·오프라인 전방위로 소통을 확대하고자 제안해 진행됐다. 참석한 30여 명의 학생과 정영선 총장은 격의 없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소통했다.



용인송담대학교

1 NCS전담교수 등 교직원 대상 4차 산업혁명 특강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17일 교내 본관 대회의실에서 NCS전담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명예연구위원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과 전문대학의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혁신적 기술 트렌드와 직업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략방안 등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2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과 장학금 전달식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9일 교내 본관 대회의실에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다섯 번째로 본 대학에 전달된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장학금은 컬러리스트과, 계악학과와 MOU 체결 이후 장학금 기탁의 뜻을 밝히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본 대학은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유한대학교

1 전국 1위, 수시 1차 인터넷 접수 증감률

본교가 지난 9월에 마감된 수시 1차 원서접수에서 2017학년도 대비 인터넷 접수 증감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본교가 지난해 대비 인터넷 접수 증감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21관왕 선정, 최첨단 실습실 구축 및 맞춤형 취업지도와 다양한 장학금 확보 등이다.

2 가족회사협의회 출범식 기업전담제 시행

우리 대학은 최근 교내 유재라관 회의실에서 '유한대학교 가족회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 대학 이권현 총장을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권현 총장의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식, 박무일 총괄 PM 교수의 가족회사협의회 출범 경과보고에 이어 이하철 산학부총장의 가족회사전담제 추진 방향 발표가 있었다.



인천재능대학교

1 자체개발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실시

본교는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에서 대학에서 개발한 자체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원서 접수 운영에 나섰다. 지난 수시 1차 원서접수 기간 중 자체 원서접수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차원의 무료 원서접수를 시범 운영했던 본교는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보완해 수시 2차부터 자체 원서접수를 실시했다.

2 호텔외식조리과 전형성 학생, LINC+ 현장실습 수기공모 특별상 수상

우리 대학 호텔외식조리과 전형성 학생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현장실습 수기공모전에서 특별상(부산시장상)을 받았다. 본 대학 LINC+사업 WCCA 인재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형성 학생은 '국경 없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성장 과정과 자신의 노력, 하계방학 동안 사회맞춤형 현장실습에서의 경험담을 담았다.



한국관광대학교

1 '2017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서 승무원 서비스 체험 제공

본교는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17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본교 항공서비스과는 기내식 서비스와 승무원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연출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 관광중국어과, '중국어 원어연극제'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9일 2017년 한국관광대학교 학습능력성과발표회에서 관광중국어과 2학년 재학생들이 '제11회 중국어 원어연극제'를 실시했다. 이번 학습능력성과발표회에서 관광중국어과가 선보인 '중국어 원어연극제'는 재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중국의 문화와 외국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전남·전북

광주보건대학교

1 평생교육원, '제6기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지난 10월 14일 '제6기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이 개최됐다. 주말을 활용해 6개월 동안 158시간의 교육이 진행된 과정에서 25명의 교육생이 수료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수료식에는 현재 산림치유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 수료생들이 참석해 후배들의 수료를 함께 축하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과 전망을 소개했다.

2 WCC사업단, '초전문직간 연계교육(TPE) 사업 설명회' 개최

우리 대학 WCC(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사업단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교내 에벤에셀홀에서 '초전문직간 연계교육(TPE)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H형 융합인재상과 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직종 연계교육의 기본개념과 국내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보건의료복지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장대학교

1 KB국민은행 군산서부지역본부, 본교에 발전기금 전달

지난 11월 20일 KB국민은행 군산서부지역본부가 본교에 대학발전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은 본교 총장실에서 진행됐으며, KB국민은행 군산서부지역본부 한상건 본부장, 이승우 총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매년 본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해 지금까지 4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강대학교

1 대학-전통시장 모범 모델로 우뚝

본교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산·학 모델 만들기에 나섰다. 본교는 이민숙 총장과 김권필 부총장, 양성관 기획처장, 나현태 교무처장 등이 말바우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말바우시장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본교는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지난해 협동조합을 만든 후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2 국제교류프로그램 성과 보고회

우리 대학은 교내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본 대학 국제교류원은 '2017학년도 상반기 국제교류사업 참가 귀국·결과보고회'를 열었다. 해외 연수 참여 학생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향후 국외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선·후배,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서영대학교

1 임상병리과 김하늘 학생, 아시아 종합학술대회 학생포럼 대상 수상

본교 임상병리과는 지난 9월 22일~24일에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 임상병리사 연맹총회 및 종합학술대회(The 5th Congress of AAMLS)' 학생포럼에서 김하늘 학생이 대상(임상병리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김하늘 학생의 발표주제는 '의료혁명 Self-monitoring 시대, 임상병리사를 외치다'라는 내용으로 전문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 뷰티아트과,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우리 대학 뷰티아트과 스킨케어전공 1학년 학생들이 헤어전공 학생들의 뒤를 이어 국제 미용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2개를 수상했다. 지난 9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에서 바디매뉴얼 테크닉 부문에 출전한 국승찬 학생과 얼굴매뉴얼 테크닉 부문에 출전한 김세화 학생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원광보건대학교

1 신임 부총장에 장기성 교수 선임

본교가 신임 부총장으로 장기성 아동보육과 교수를 선임했다. 2009년 임용돼 다문화복지과 및 아동보육과 교수로 재직해온 장기성 신임 부총장은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장, 평생교육원장, 원격평생교육원장, 평가관리실장, 국제교류처장, WCC사업단장 등 중책을 역임하며 본교 발전에 힘썼다. 특히 대학 WCC(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사업 선정 및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2 필리핀 세부 세종학당, 2017년하반기 '세종문화아카데미' 수료식 실시

우리 대학 원광글로벌교육센터가 운영하는 필리핀 세부 세종학당이 지난 10월 14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세종문화아카데미'의 수료식을 했다. 지난 2013년 세부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본 대학 원광글로벌교육센터는 '2017년 하반기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학당'에 선정돼 9월 8일부터 6주간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과학대학교

1 2017학년도

'제22회 청불 샘골대동제' 개최

본교가 지난 10월 18~19일 양일간 교내 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제22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청불 샘골대동제'를 개최했다. 이날 대축제에는 황인창 총장, 장성렬 정읍교육장, 우천규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 그리고 정읍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무대가 펼쳐졌다.

2 2017년 교직원 하반기 폭력 예방 교육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6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첨단강의실에서 하반기 폭력 예방(성폭력·가정폭력) 통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김정현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교직원들이 더 쉽게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주비전대학교

1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한국화 강연' 실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본교 도서관에서 지난 10월 11일 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를 초청해 '겸재 정선의 삶과 그림'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재학생 40여 명은 정선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보고 정선의 여러 그림을 감상했으며 화훼영모화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 미용건강과, BBIM Institute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BBIM Institute와 미용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18일 교내 회의실에서 이뤄진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전문식 교육 운영을 통한 미용 전문인 양성과 취업 연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전·세종·충청

강동대학교

1 학생상담센터,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본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9월 21일 교내 총장실에서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는 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과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얻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동으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2 중학생 대상 학과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음성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난 10월 17~18일 2일간 교내에서 감곡면에 위치한 감곡중학교와 매곡여자중학교 약 6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된 프로그램은 항공관광과, 레저스포츠과, 호텔조리제빵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등 4개 학과에서 개설된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덕대학교

1 호텔외식조리과, '금산인삼엑스포 요리대회 · 서울 남산 국제요리대회' 수상

본교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금산인삼엑스포 요리대회와 서울 남산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해 전원 수상했다. 지난 9월 30일 '금산 인삼엑스포 요리경연대회'에서는 본교 호텔외식조리과 52명의 학생이 참가해 수상과 함께 금산엑스포에서 맛과 미를 보여주었다. 또, 10월 1일 열린 남산서울국제요리대회에서는 전시부문 금메달 2개와 MBN 사장상을 받았다.

2 전자자동화과, 희망플러스 장학금 전달

우리 대학 전자자동화과는 지난 10월 11일 교내 정곡관 자동화 실습실에서 이석현 외 25명의 재학생에게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해 학과 교수진들이 각종 사업에 참여해 모은 특강비와 강사로 및 로크웰오토메이션 코리아의 기부금을 전달한 행사이다.



대원대학교

1 '2017 제천 진로 · 진학체험 페스티벌' 개최

본교의 제천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교내 민승체육관에서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 · 중 · 고 교장 및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꿈 · 끼 · 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 · 진학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 마영삼 전 덴마크 대사 특강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3일 교내 연구관 세미나실에서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지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덴마크는 어떻게 행복 1위 국가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마영삼 명예교수는 90여 분간 특강을 진행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본교가 마련한 '2017 취업 토크콘서트' 행사가 지난 9월 26일 교내 창대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복수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청년 취업정책' 주제를 비롯해 선병원 신광성 인사총무팀장의 '최근 의료분야 채용 경향'과 '우량 기업 취업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옴니버스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2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 창의적 아이디어 연합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교내 창대체육관에서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 창의적 아이디어 연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과 및 계열과 동아리에서 캡스톤디자인 16개 작품, 창업 아이디어 및 시제품 17개 작품, 창의적 아이디어 25개 작품 등 총 58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신성대학교

1 국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

본교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린 'ICES 2017 국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한 3개 상을 수상했다. 본교 소방안전관리과 권지환 외 3명이 출품한 'Wireless remote controlled excavator using haptic technology'라는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다.

2 '제13회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31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사무소 일원에서 '제13회 사회봉사단 발대식 및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회봉사단 발대식에는 김병목 총장 및 대학 주요 보직자들을 비롯한 사회봉사단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고대면 지역주민들에게 혈압 및 혈당 체크, 스포츠마사지, 물리치료, 농기계 수리, 파마와 커트 등의 미용시술을 실시했다.



충남도립대학교

1 충청남도 기관과 '지역인재 역량 강화' 맞손

본교가 지난 10월 12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및 (재)충남테크노파크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교와 두 기관은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연구과제의 공동 참여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사업의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2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19회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우리 대학의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양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오로라홀릭 박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2학년 재학생 40여 명이 참여했다.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 온 지식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작품 18점, 패션 작품 9점 등 총 27개 작품을 선보였다.



충북도립대학

1 '도담' 동아리 엑스포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27일 교내 일원에서 제1회 '도담' 동아리 엑스포를 개최했다. 교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열린 동아리 엑스포에는 21개 동아리가 참가해 캐리커처 그리기, 주차번호판 제작, 태양광 발전 시연, 에코백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아리에서 배우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여기에 책 내용을 손글씨, 연극 및 노래로 표현하는 캘리그래피 밴드 콘서트도 열었다.

2 금연·절주 캠페인 개최

우리 대학은 옥천군보건소와 함께 지난 11월 8일 교내 본관 일원 및 미래관 합동 강의실에서 금연·절주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금연 및 절주와 관련된 홍보물 배부, 서약서 작성, 상식 퀴즈 및 룰렛게임, 개인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 정보통신부사관과, 국방공무원(부사관) 14명 합격자 배출

본교 정보통신부사관과가 올해 군장학생(부사관)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군별을 보면 육군부사관(장학생) 10명, 해병대부사관(장학생) 2명, 여군부사관 2명으로 부사관으로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됐다. 이들 합격생은 국비 장학생으로 2학년 1년 과정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2 품성 함양을 위한 꿈드림 봉사단 '벽화 그리기' 행사

우리 대학 품성교육센터에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보육청소년과 꿈드림 봉사단이 청주 흥덕구 소재 봉정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두 번째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동보육청소년과 꿈드림 봉사단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함께 건물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아름다운 벽화를 함께 완성하는 경험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했다.



충청대학교

1 어학연수생 9명 입학

본교는 지난 9월 20일 교내 도서관 미디어센터에서 오경나 총장 등 대학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평직업학교 학생 7명 등 중국과 일본 어학연수생 9명의 한국어 과정 입학식을 했다. 이번에 교내 국제교육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중국 8명(창평직업학교 졸업생 7명, 기타 1명), 일본 1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내년 1학기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한다.

2 간호학과 서지에 학생, 당뇨학교 최우수 멘토로 선발돼 미국 병원 견학

우리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서지에 학생이 '대한민국 당뇨학교(Dreaming Mentoring)'의 최우수 멘토로 선정돼 미국의 병원을 방문했다. 서지에 학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소아당뇨인 협회가 실시하는 당뇨학교의 최우수 멘토로 선발돼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뉴머스 어린이병원, 홈 헬스케어 시스템 등을 견학했다.



한국영상대학교

1 WCC 현판식 가져

본교가 지난 9월 유재원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사업)' 현판식을 열었다. 본교는 WCC 사업을 통해 '교육·생산·유통·고용이 선순환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BIZ 캠퍼스'라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 글로벌 브랜드 가치 창출 교육 모델을 발굴하며 확산시킬 예정이다.

2 '2017 한·중 청소년교류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우리 대학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한·중 청소년교류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양국 청소년 간의 이해와 우호증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사업 예산은 5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재학 중인 한·중 학생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하게 됐다.



대전대학교

1 '서울 국제제빵과자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본교 제과제빵과는 지난 10월 25~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 및 '제8회 학생쌀케이크경연대회'에 참가해 한송희 학생이 2개 부문(버터밀크 데코레이션과 쌀케이크 데코레이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제과제빵과 5명의 학생이 참가해 전원이 수상했다.

2 해전(오숙근)장학금 및 청운장학금 증서 수여식

지난 11월 1일 '해전(오숙근)장학금 및 청운장학금 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교법인 해전학원 이준호 이사장이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한승현, 호텔조리외식계열 정하림 학생에게 해전(오숙근)장학금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각 100만 원을 수여했으며, 작업치료과 최윤정, 임상병리과 서윤영 학생에게 청운장학금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강원

강원관광대학교

1 K-Move School 싱가포르 특급호텔 2년 취업비자 연수과정 실시

본교 학생들이 지난 10월 8일 인천공항에서 K-Move School 싱가포르 특급호텔 2년 취업비자 연수과정을 떠났다. 참가자 10명은 9월 4~29일 4주간의 국내 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8일 싱가포르로 떠나 3주간의 연수과정을 거치며 취업을 준비했다. 국외 교육은 연수과정을 포함해 10월 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3주간 이뤄진다.

2 2017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시범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2017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시범사업(고용노동부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사업비 6천만 원(정부지원 50%, 대학 50% 매칭) 중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상지영서대학교

1 언어재활과, 진광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실시

본교 언어재활과에 진광중학교 학생 20명이 지난 10월 12일 진로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 진광중학교는 학생들이 '언어치료사 진로 체험' 과정을 통해 언어발달장애와 언어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20여 개의 검사 도구를 실제 사용하면서 체험했으며 개개인이 직접 컴퓨터를 통한 음성 검사와 음성 놀이를 시행했다.

2 언어재활과, 시원컴퍼니와 산학협약 체결

우리 대학 언어재활과는 시원컴퍼니와 지난 10월 17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시원컴퍼니는 2016년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주최 GIF(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대상을 받으면서 언어치료 관리 시스템 구축과 언어치료 앱 개발 등 언어치료 관련 사업을 발전시켰다.



세경대학교

1 간호과,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본교 간호과는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난 9월 27일 교내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의 간호사로 병원과 의료 제도의 개혁자인 광명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잇고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자리였다.

2 카지노경영과 학생들, '2018년 세계포커대회' 선전 의지 불태우다

우리 대학 카지노경영과 MGM카지노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제4회 텍사스 홀덤포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카지노 홀덤포커 딜러 취업 희망 학생과 내년도 세계포커대회(W SOP, WPT)에 출전할 학생들의 훈련 강화를 목표로 40여 명이 예선에 참여해 7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3명이 입상했다.



한림성심대학교

1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금연 장학금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마쳐

본교는 지난 10월 18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금연 성공 장학금 시상식을 열어 성공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50만 원을 수여했다. 이번 금연 프로그램에는 총 108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9번의 흡연 여부 검사를 통해 23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또한, 검사 기간 동안 건강관리 교육, 건강검진, 심리치료를 병행해 금연자들의 건강을 관리했다.

2 (주)모두투어네트워크와 산학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지난 10월 19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주)모두투어네트워크와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개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여행 관련 창업동아리 운영지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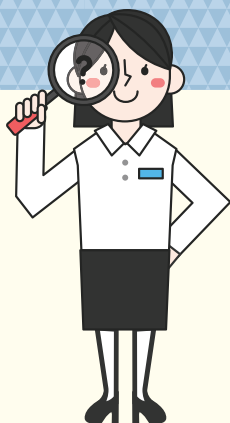
각 전문대학 기획·홍보·입시 담당자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보도자료 및 대학 소식 등을 <전문대학 소식>에 담고 있습니다.

대학이 알리고 싶은 뉴스나 취재 내용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by1126@kcce.or.kr



진학, 전공 소개, 취업 등 전문대학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메일(kccenews@snacomm.com)로 언제든지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대학·전문학교·폴리텍대학, 서로 달라요!

직업교육기관별 차이점

**Q. 입시를 앞두고 각종 대학과
직업교육에 대한 안내를 자주
접합니다.**

**전문대학과 전문학교,
폴리텍대학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이 올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1979년 기존의 전문학교와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통합 재편성하였으며 수업연한은 2~3년, 일부학과는 4년입니다. 전문대학 졸업하면 대학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아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일반 대학의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편입도 가능합니다.

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대학이 아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지만, 학위를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문학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학점은행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전문학사학위가 수여되며, 일반대학, 전문대학의 편입학 자격이 됩니다.

한편, 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직업' 또는 '실용'을 붙여 '직업전문학교' 또는 '실용전문학교'를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 '전문학교'라고 홍보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폴리텍(Polytechnics)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5에 따라 기능대학이 다기능기술자과정(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과 동일) 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합니다.

'종합기술전문학교'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2006년 기준에 있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전국에 폴리텍 I ~ VII대학과 4개의 특성화대학(바이오·항공·섬유패션캠퍼스/신기술교육원)으로 총 11개 대학 38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2년 학위과정과 6개월·1년의 기능사 과정 등 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1 + 2'

건 접수 건 무료접수

혜택을 누려라! 인천재능대만의 원서접수시스템 오픈!



- ✓ 2012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 ✓ 2013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 ✓ 2014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 ✓ 2015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 ✓ 2016 취업률 수도권 3년 연속 1위 달성
- ✓ 2016 취업보장 고교-전문대학 육성사업(Uni-Tech) 선정
- ✓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2차 모집 : 2017.11.7(화) ~ 28(화)
정시 모집 : 2018.1.6(토) ~ 16(화)



능력중심사회 실천 선도대학

인천재능대학교